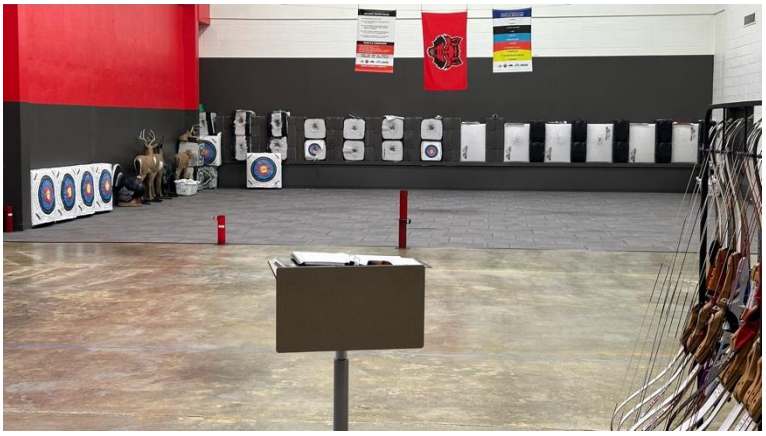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정여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rkansas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07월 1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수업

- 저는 2024 가을 학기부터 2025 봄 학기까지 교환학생 신분으로 생활하고 왔습니다. 본래 과와 비슷한 학과인 Computer Science 관련 수업을 주로 들었으며 양궁, 승마, 소프트볼, 테니스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관련 수업이 많이 열렸습니다. 다만, 양궁을 제외한 다른 수업들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가 없다면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양궁 수업은 들어본 결과 정말 재미있었고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학기부터 전공 수업을 많이 들어본 결과 수업 특성 상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이 많아,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동시에 힘듦도 있었습니다. Computer Science 관련 수업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팀프로젝트를 더 이끌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한국인 교수님들께서 정말 잘 챙겨 주시기 때문에 힘듦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입니다.

2. 학교 위치 및 기타 시설

- 학교 위치

학교는 Arkansas 주의 Jonesboro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LA에서 경유를 한 뒤, Memphis 에 도착하였습니다. 첫날에는 Jonesboro 안에 있는 호텔로, 오리엔테이션 당일에는 그 호텔 앞으로 데리러 나오시지만 저와 친구의 경우, 버스가 오는 시간을 잘못 통보 받았고 다른 시간의 버스를 탑승하여 오리엔테이션에 늦게 도착하였지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만약 오리엔테이션 날이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면 교통수단을 거의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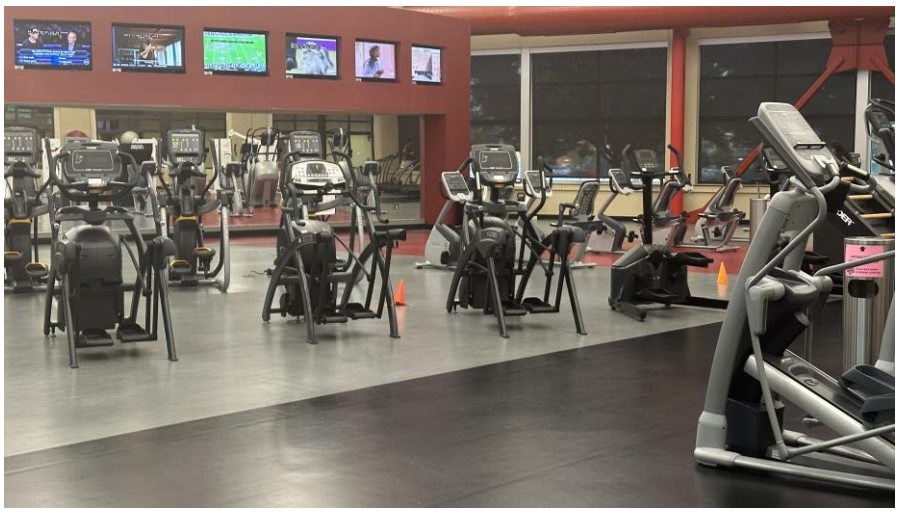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Uber/Lyft 를 이용해야 합니다.

- 교통수단 및 주변 식당
학교는 큰 편은 아니며, 모든 시설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골에 위치하여 차가 없이는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기 힘듭니다. 2주에 한번씩 멤피스에 있는 아시안 마켓에 데려다 주지만 예약을 하기에 쉽지 않고, Jonesboro 내에 장을 보기 위해 갈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해주지만 잘 이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놀거리가 그리 많지 않고 주변 한식 레스토랑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Panda Express가 생겼고 마마상, 이치야 등 한식의 느낌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곳은 많다고 느꼈습니다.

- 학교 시설
학교 시설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편입니다. 학교 내에 스타벅스, 칙필레, 마켓, 피자집, 하울스, 아인슈타인 베이글, 샐러드집 등 다양한 것이 있고 식당도 굉장히 크고 메뉴가 꽤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밀플랜은 처음에는 식당을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나 스타벅스를 많이 가는 편이였고 점점 식당보다는 다른 곳에서 사먹는 것이 더 편하고 맛있어서 All flex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에 남은 flex로는 스타벅스에서 상품들을 살 수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라운지에서는 국제학생들끼리 모여서 많이 떠들 수 있으며 함께 공부도 많이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라운지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 기숙사
첫 학기는 다른 건물에는 자리가 없어서 Honors Living Community 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요리해 먹기가 너무 불편하였고 룸메이트가 많아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변경하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았고 그 다음 학기에 CP로 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CP는 요리해 먹기는 좋지만 깨끗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환학생들도 모두 NPQ, CP 중에 거주하였습니다.

- 체육관
주변에 놀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 행사가 있거나 약속이 없다면 거의 매일 체육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농구, 배드민턴, 피클볼 을 많이 하였고 초반에는 스피닝 수업도 조금 들었습니다.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시간만 된다면 꼭 참여해보기를 추천 드립니다. 체육관은 정말 넓고 좋으며 모두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3. 팁
- 미국의 여러 주에 다녀온 후에 느낀 것은 Jonesboro의 날씨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몇번의 토네이도 경보 말고는 심각하게 덥거나 심각하게 추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밀플랜은 All flex를 추천 드립니다.
- 편한 옷을 챙겨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최대한 많은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재밌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 P.O box는 필수로 있어야 하지만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교환학생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학생 계정으로 아마존 프리미엄을 무료로 사용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물을 마실 때는 부리타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저는 그것보다 편하게 마시고 싶어서 페트병에 든 물들을 대량으로 사서 방에 두고 먹었습니다.
- 주변에 센터니얼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의 카드는 다른 고세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머무시는 것이라면 조금 거리가 있는 Bank of America 에 가셔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선욱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컴퓨터과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정규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8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24학년도 2학기부터 25학년도 1학기까지 정규교환으로 UIW에 다녀온 컴퓨터과학과 강선욱입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있는 참여 보고서들을 모두 보고 모든 정보를 끌어모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걸 준비해야할 지, 미국에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아무것도 모르는 긴장되는 상태로 보고서들을 읽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봅니다.

먼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목차를 (기숙사 / 음식 / 수업 / 여가활동 및 이벤트 / 한인 교회 / 기타) 이렇게 나누어보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저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디엠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tjsdnr5833
인스타그램: @nuk2_0325

1. 기숙사

UIW에는 여러 기숙사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UIW의 Residence Life & Housing Operations 홈페이지에서 기숙사의 도면과 기숙사 내부를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할 수 있고 또한, 화장실, 부엌, 커뮤니티 룸 같은 옵션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각각 가격은 얼마인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여 각각 기숙사의 특징을 정리하고 힐사이드를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힐사이드는 여러 기숙사들 중 유일하게 혼자서 쓰는 기숙사이고 화장실도 방 안에 딸려 있는 전형적인 원룸같은 스타일입니다. 제가 힐사이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첫번째로 제가 다른 사람이랑 잠을 같이 못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랑 여행을 할 때도 같이 자는 것을 꺼려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깊게 잠을 못 자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힐사이드가 1인실이라 비싸긴 하지만 다른 기숙사와 금액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저는 힐사이드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힐사이드 방 사진)

처음에 힐사이드 도면을 보고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용하기에 충분히 크고 쾌적했습니다. 기숙사 내부 가구는 재배치해도 상관 없고 침대 높이는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 침대 프레임을 뺄 때 발로 세게 차야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높이 조절하는 방법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나와있었습니다.

힐사이드 커뮤니티 룸은 3~4인용 방, 6인용 방, 미디어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인용, 6인용 방은 주로 밥을 먹거나 공부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미디어 방은 티비와 소파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티비에 노트북을 연결하려면 HDMI 선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주방은 간단한 요리를 해 먹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리도구가 넉넉하지 않고 양념 같은 건 모두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해서 저는 많이 해 먹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먹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볶음밥, 파스타를 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기숙사는 신청하라는 메일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특히, 힐사이드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더욱 더 권유드립니다.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될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기숙사는 방이 비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 중간에 기숙사를 바꾸는 게 정말 힘듭니다. 원하는 기숙사가 있다면 꼭 재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번외) 다른 기숙사 소개
사진은 없지만 친구들 방에 놀러가 본 기억을 더듬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맥콤
맥콤은 아파트 복도처럼 방이 일렬로 쭉 있고 밖에 주방과 소파가 있습니다. 주방은 힐사이드보다는 조금 더 크고 쾌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접시나 식기류도 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놀러갔던 방은 혼자 쓰는 방이었는데 힐사이드보다는 좁았던 것 같습니다.

아보카
아보카는 거실이 엄청 넓고 소파도 두개나 있습니다. 주방도 일반 가정집 주방처럼 커요. 방은 두 명씩 한 방을 쓰는데 꽤 넓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 화장실은 4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해서 친구가 좀 불편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리스
조리스는 두 명이 같은 화장실을 쓰는 구조인데 힐사이드처럼 복도에 커뮤니티 룸들이 있습니다. 방 크기는 힐 사이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좁았던 것 같습니다.

 # 기타
방에서 냉방과 난방 모두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면 RA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기숙사의 대부분의 것들은 RA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됩니다. 새벽에 옆 방이 시끄럽게 한다 이런 것도 RA에게 말해도 됩니다.

기숙사 건물이 방음이 잘 안됩니다. 옆 방에서 크게 웃으면 웃음 소리가 다 들리고 음악 소리도 다 들려요. 옆 방에서 친구들을 불러 시끄럽게 떠들 때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잔 적도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울 때는 노크를 하고 그래도 시끄러우면 R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캠퍼스 경찰을 불렀습니다. 기숙사마다 조용히 해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경우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힐사이드는 학생증으로 각 층의 문을 열고 열쇠로 방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증은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을 때도 사용해야하고 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 까먹지 않았지만, 열쇠를 방에 두고 나오는 일은 꽤 잦았습니다. RA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면 스페어 키를 가지고 와서 열어주는데 한달 내에 3번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되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15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3번 이상부터 한번 부를 때마다 $15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번 불렀을 때 $15, 4번 부르면 $30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열쇠를 그냥 방 문에 꽂아놓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힐사이드에서 수업 듣는 건물까지는 12~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대 건물, 예술 건물은 조금 더 안쪽에 있어서 17분~20분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경제, 경영 수업 건물은 10분~12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힐사이드가 가장 안쪽에 있다고 해서 수업 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종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겠죠. 힐사이드는 아보카 건물 옆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학교 운동장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가끔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을 때는 3번 정도 고장났던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돌아가야하는데, 이럴 때는 넉넉하게 20분을 잡고 갔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더워서 셔틀을 애용했습니다.

셔틀 버스가 있고 힐사이드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따로 시간표로 버스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먼저 나가서 STOP 사인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힐사이드 창으로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힐사이드는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이 있는데 오른쪽 라인의 방들이 창 밖으로 운동장, 학교 건물이 보이는 방들입니다. 만약 오른쪽 라인 방에 가게 되신다면 창문 밖으로 야구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셔틀 버스가 야구장을 지나고 있을 때 가방 챙겨 신발 신고 기숙사를 나서면 셔틀 버스가 힐사이드 앞에 도착하는 시간과 얼추 맞습니다. 셔틀버스는 밤 9시~10시 정도까지 운영했던 것 같아요.

2. 음식
교환학생은 무조건 밀스와이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브론즈를 선택했는데 브론즈는 8번의 밀스와이프(일주일 단위)와 875달러의 다이닝 달러(학기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밀스와이프 사용하기

밀스와이프는 카페테리아에서 사용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학교 건물 중 SEC(Student Engagement Center)에 위치해 있는 학생 식당입니다. 카페테리아는 3가지 요리 구역 + 샐러드/과일 + 디저트/샌드위치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요리 구역은 피자, 파스타(또는 베지테

리언 음식), 햄버거, 감자튀김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었고, 두 가지 요리 구역은 식사 때마다 다른 요리가 나왔습니다. 타코나 멕시코 음식, 닭가슴살 요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직원 분들 모두 친절하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는 편이라 자주 이용했습니다.

(카페테리아 음식 사진)

(블로그에도 카페테리아 음식 사진이 많아요. 궁금하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국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밀스와이프를 모두 사용했는데 카페테리아를 이용하고 싶다면 다이닝 달러로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의 가격이 다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리유저블 용기를 결제하고 카페테리아 음식을 싸갈 수 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종종 와플 기계와 반죽이 나오는데 직접 구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한 번 쯤 꼭 먹어보세요!

(와플 사진)

 # 다이닝 달러 사용하기

다이닝 달러는 스타벅스, 루시아노, 칙필레, Hortencia, Everyday 어플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이닝 달러는 학기 단위로 소멸되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 써야 하고 반대로 학기가 끝나기 전에 너무 빨리 소모되지 않도록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루시아노에서는 스파게티, 피자, 타코, 윙봉 등을 파는데 윙봉이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먹었던 것 같습니다. 루시아노는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당구대, 탁구대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면서 밥을 먹기도 좋은 장소라 애용했습니다.

(윙봉 사진)

칙필레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프렌차이즈 가게입니다. 와플 모양 감자튀김이 정말 맛있습니다. 꼭 세트로 드세요... 감자튀김에는 폴리네시안 소스 추천드립니다.

(칙필레 사진)

Hortencia는 캠퍼스 내부에 있는 편의점 같은 곳입니다. 칙필레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이닝 달러를 이용해서 컵라면,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컵라면, 과자, 탄산음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먹었어요.

Everyday 어플에서는 다이닝 달러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ICC 건물 1층에 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음식들을 everyday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루시아노나 카페테리아보다는 살짝 비싸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Honey garllic 윙, Sweet chili 윙, 미스터비스트 햄버거를 추천합니다.

← 허니갈릭 윙

번외로 everyday 어플에서는 카페테리아 메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름만 보고는 모르는 메뉴들이라 직접 가서 보는 것을 선호하긴 했습니다. 닭요리가 나온다, 소고기 요리가 나온다, 타코가 나온다 이정도는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타 - 학교 외부에서 밥을 먹는 방법

우버 이츠로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비와 팁이 너무 비싸서 처음에 한 두번 빼고는 시켜먹지 않았어요.

학교 바로 옆에 센트럴 마켓이 있습니다. 꽤 다양한 재료와 음식들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 $12~15 정도의 요리들, 회와 초밥, 식재료 등을 팔고 있고 불닭볶음면도 팔고 있습니다. 회와 초밥은 비싸서 딱 한번 사먹었고 저는 주로 과일과 맥주를 많이 사먹었습니다. 정육점 코너에서 삼겹살을 사서 구워먹기도 했고 야채를 사서 요리를 해먹기도 했어요. 식재료들은 저렴하고 신선하니까 한번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센트럴마켓의 젤라또가 맛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긴 한데 양을 많이 주니까 한번쯤 먹어보세요!

센트럴 마켓 길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우버이츠 배달비가 아까울 때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학교 길 건너 쪽에 Cheesy Jane’s라는 로컬 햄버거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밀크쉐이크를

꼭 먹어주세요...

K-Pot이라는 훠궈집이 있고 Kim’s Galbi라는 Korean BBQ가게가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가끔 한국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방문했습니다.

월마트, 타겟같은 마트는 셔틀 버스를 타고 자주 가게 됩니다. 월마트에 불닭볶음면과 신라면같은 한국 라면을 싸게 팔아요.

한국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아시안 마켓이 학교 근처에 두 군데 있습니다. Seoul Market과 Korean Market인데요. 두 군데 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학교 쇼핑 셔틀로는 잘 갈 수 없습니다. 구글 맵에 검색해보면 버스타고 갈 수 있는 루트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서 자주 갔었습니다. 김치, 반찬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한국 라면도 다른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단,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다수로 가곤 했습니다.

3. 수업

저는 가을 학기에는 15학점, 봄 학기에는 16학점을 들었습니다. 상명대학교에 없는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 교환학생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상명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 전공이고 UIW는 Cyber Security 전공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공이라서 그런지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주로 과제, 실습, 중간 퀴즈로 점수가 많이 매겨졌고 시험이 있어도 수업시간에 정말 강조된 내용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마다 과제와 실습이 정말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합니다.
다른 경제, 경영 전공은 시험이 꽤 많고 난이도도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학기 초 일주일은 OT를 하고 시간표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일단 수업을 들어보고 시간표를 정정했습니다.

가을 학기

1. Programming Languages 1
   파이썬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수월하게 수강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 아닌 사람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 Website Development 1
   HTML, CSS, Javascript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제작해보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일단 직접 제작해보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단 ChatGPT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는 적어야 합니다.)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정 개념을 적용해서 제작한 페이지를 과제로 제출하거나 중간, 기말에 발표할 웹사이트의 중간 과정을 제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중간, 기말에는 자신이 제작한 웹사이트를 수업시간에 발표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발표 대본을 써서 중간중간 보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피드백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3. Computer Systems Security
   Cyber Security 전공의 가장 기초 수업입니다. 실습 과제가 많고 팀 프로젝트도 있어서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Intro/Probability & Statistics
   확률과 통계 수업입니다. 70% 정도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어서 쉽게 들었습니다. 과제와 중간 시험을 많이 봅니다. 중간 시험은 보통 과제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교수님이 정리해주는 피피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5. Class Guitar
   기타 연주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단, 기타를 각자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 연주가 아닌 클래식 기타 연주를 배웁니다. 저는 guitar center에서 기타를 구매하여 수강했습니다. 중간 발표가 여러번 있는데 전공 수업 보다는 교양 수업 느낌이어서 잘 못해도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봄 학기

1. Intro to Digital Photography
   교양 수업이 아닌 사진 학과의 기초 수업이지만 타학과 사람들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진의 구도, 촬영 기법에 대해 자세하게 배웠고 과제도 꽤 시간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카메라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똑딱이 카메라를 미국에 갖고 갔었습니다. 핸드폰은 안되지만 카메라의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카메라를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공용이라 아무래도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개인 카메라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과제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카메라 수동 조작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사진 편집도 해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2. Seminar in CIS
   컴퓨터 전공생들이 듣는 세미나 수업입니다. Guest speaker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resume, cover letter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거나 job interview를 연습하는 시간도 있어서 영어 회화에 자신이 없는 저는 꽤 식은땀을 많이 흘렸던 수업이었습니다.

3.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수업입니다. 상명대학교에서 이미 들었던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이 정말 쉽고 귀에 쏙쏙 박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4. Cryptography
   Cyber Security 전공 수업 중 하나인 암호학 수업입니다. 거의 이론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많아서 어려웠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5. Cloud Computing
   클라우드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Google Cloud Platform을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직접 실습해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험은 없지만 과제가 정말x100 많았습니다...

6. Elementary Spanish 1
   스페인어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많이 선택하고 특히 멕시코 계통 사람들이 많은 샌안토니오에서는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매우 다양한 수업입니다. 저는 Michael Tallon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가끔 영어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스페인어로만 수업을 하실 때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교수님인데 저는 호였습니다. 과제와 시험이 많은 것이 단점이고, 학교 내에 멕시코 친구들과 스페인어를 주고 받으며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타

성적은 절대평가여서 큰 부담은 갖지 않았습니다. 90점을 넘으면 A인데 Canvas에 점수가 계산되니까 그때그때 참고하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미국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모든 수업 다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에 따라 수업 스타일이 많이 달랐습니다. 출석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교수님도 있고 반대로 엄청 예민해서 지각만 해도 싫어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토론형으로 피피티 한 페이지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그냥 쭉 수업을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싶다면 오티에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여가활동 및 이벤트

 # 학교 내 이벤트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벤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21세 이상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이벤트 사진)

학교에서 대학 스포츠 경기를 많이 합니다. 가을 학기에는 풋볼 경기를, 봄 학기에는 농구 경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홈 경기는 무료이고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경기들도 많았어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끼리 함께 가서 응원하고 재밌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학교 내 놀거리들

루시아노에서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당구, 탁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함께 게임을 하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 캠퍼스에 있는 **gym**이랑 **natatorium**을 자주 갔었습니다. **Gym**에서는 여러 체육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러닝머신, 천국의 계단, 웨이트 기구들도 많아서 운동하기 좋았습니다. 농구공과 배구공을 빌려서 친구들과 같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Natatorium**은 수영장인데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 외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운 여름에 매일 가서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깊이가 얕은 곳도 있어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 외 놀거리들

학교 외부로 놀러 나갈 때는 주로 버스를 타고 **Pearl Market, North Star Mall, River Walk**를 갔습니다. 모두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Pearl Market**은 여러 식당들도 있고, 저녁이 되면 전구가 켜지고 버스킹도 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North Star Mall**은 쇼핑할 수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 같은 곳이라 쇼핑을 하기 위해 자주 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했던 기억도 나네요. **River Walk**는 강을 따라 길이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분위기 있는 식당들도 많고 **forest gump**에 나온 식당으로 유명한 **bubba gump**도 있습니다.

기숙사와 도서관에서만 공부하기 지루해질 때는 학교 밖 카페에 가서 공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길을 건너 **5**분 정도만 가면 **Woori teahouse**라는 버블티 가게를 자주 갔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가 베이스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버블티를 주로 판매하지만 김밥, 비빔밥 같은 간단한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한국 컵라면과 탄산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 내부는 정말 한국 카페처럼 충전 콘센트들이 자리마다 있고 케이팝 음악도 나오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Nowhere Bookshop도 한 번 방문했었는데 이 곳은 카페는 아니고 카페 겸 서점같은 곳입니다. 원서 책들을 팔고 있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Frost Bank Center에서는 농구 경기와 콘서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농구를 잘 모르지만 NBA를 한 번쯤 보고 싶어서 스테판 커리가 있는 Golden State가 방문했을 때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콘서트도 꽤 자주하는데 케이팝 가수들도 종종 옵니다. 저는 할로윈 데이 때 세븐틴 콘서트를 갔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떼창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Cowboy Dancehall이라고 클럽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럽은 아니고 그냥 춤을 추는 곳입니다. 큰 홀에서 단체로 춤을 추기도 하고 라이브 밴드 공연도 합니다. 학생들은 수요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서 3~4번 정도 갔었습니다.

 # 기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할로윈을 느껴보고 싶어서 할로윈 코스튬을 빌렸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Gibson Costume Shop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엄청 넓고 코스튬도 많습니다. 단, 구글맵에 나와있는 운영시간과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니 유의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ix Flags라는 놀이공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면 재밌을 거에요. 할로윈에 가게 되면 분장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을 놀래킵니다.

차 타고 나가면 Bigbang 노래방이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싸지만 종종 노래방이 그리울 때 친구들과 방문했습니다. 방 하나당(6명 기준) 1시간에 $6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 한인 교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매주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환학생으로 있던 한국인 언니와 연결된 목사님이 샌안토니오에 계셔서 저도 함께 해당 교회를 다녔던 입장이지만, 목사님께서도 UIW 학생들이 해당 교회를 많이 알게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샌안토니오 제일 한인 장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만큼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학교에서는 차로 10~15분 정도 가야하는데 연락을 드리면 학교로 매주 픽업을 와주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때도 차로 꼭 태워주십니다.

외국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인 교회의 최대 장점은 한식을 먹을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처럼 제일 한인 장로 교회에서도 한식을 자주 만들어주시고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도 하고, 혹시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회에 발을 담그게 될까 걱정했었던 입장에서 제일 한인 장로 교회는 전

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 예배도 있어서 한국과 다른 예배 문화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한식 사진)

6. 기타

 # 날씨

날씨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눈도 조금 왔었습니다. 처음에 마트에서 침구류를 사게 될텐데 두꺼운 이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잘못해서 얇은 이불을 샀는데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춥다보니 패딩도 생각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롱패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량패딩이 아닌 그냥 패딩이 있으면 좋습니다.

 # 학교 근처 치안

UIW는 사립 학교이고 근처에는 나름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내부와 근방은 꽤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밤에도 센트럴마켓 정도는 혼자 다녀왔습니다.(센트럴마켓은 학교 내부를 통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외부 도로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방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운타운를 갈 때, 버스를 탈 때는 혼자가 아닌 다수로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 안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Citizen 어플은 꼭 다운받으시고 학교 다닐 때, 여행 다닐 때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학기 초에 큰 돈을 낼 때 service fee 안 내는 방법

학기 초가 되면 기숙사비, 밀플랜 등의 비용을 꽤 큰 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 체크카드 한도에 막혀서 당황하기도 했고 한국 카드로 돈을 내려면 환전을 위한 service fee를 추가로 냈던 경험도 있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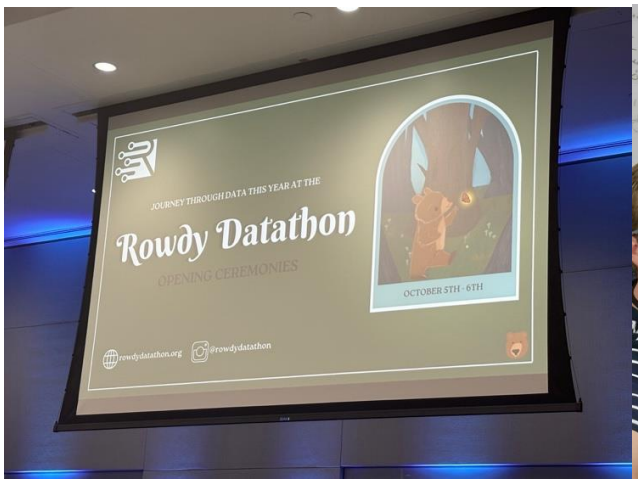
먼저, 체크카드로 내고 싶은데 한도에 막히게 된다면 비용을 내는 곳에 month-plan 같은 것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부 같은 개념으로 비용을 3번에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약간의 플러스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서 꼭 나눠서 내야 하거나 저처럼 체크카드의 한

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Chase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Chase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 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청해야만 갈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계좌를 만들게 되면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은행에서 Chase 계좌로 지불해야하는 비용만큼을 보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면 비용을 지불하는 사이트에서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불”을 꼭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Chase 체크카드를 통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Chase 계좌를 통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service fee를 지불하게 됩니다. Service fee를 지불하기 싫다면 꼭 계좌를 선택해주세요.

 # 학교 외부 해커톤/데이터톤

저는 전공이 컴퓨터과학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해커톤을 참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학과 교수님께서 근처 학교에서 데이터톤이 열린다고 공지를 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많이 떨렸지만 지나고 보면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UTSA라고 다운 타운에 있는 대학교 내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였고 데이터톤을 먼저하고 일주일 뒤에 해커톤을 합니다. 저는 데이터톤을 하고 난 다음에 지쳐서 해커톤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미리 일정을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회들은 가을 학기에 모두 진행됐습니다. 봄 학기에도 비슷한 대회들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참여하시고 싶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Beginner friendly여서 대회에 경험이 없거나 프로그래밍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해커톤 같은 대회도 한번도 참여해본 적 없지만 기세로 참여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준비할 때의 어려움이 생각나서 주저리주저리 길게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도 정말 좋고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진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교수님들 모두 친절하고 함께 대화하고 가까워지며 얻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열면 열수록 더 얻어가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한번밖에 없을 순간을 건강하게 마음껏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정보명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4 학년도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국가	United States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7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UMKC)는 Kansas 주와 Missouri 주 가운데 위치했는데요. Kansas City는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대학교는 문화 시설이나 식당 거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UMKC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플라자, 도서관, 미술관, 마트 등이 위치해있습니다. 다만 이 점으로 부지가 다른 미국 대학교에 비교해서는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에는 대게 중산층-상류층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노숙자가 적고 깨끗해서 안전한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에는 회사들이 모여 있으며 일반 가정집은 그 외 지역에 분포해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갈 때는 귀여운 가게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다운타운이나 오버랜드 파크에 갔습니다.

UMKC는 유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입니다. MO만 해도 백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 인종차별 문제는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Meal plan이 맛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같이 Meal plan을 먹던 친구들이 한입 모아 메뉴는 바뀌는 것 같은데 매일 같은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맛있을 때도 있는데 확실히 메뉴에 다양성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Flex dollar로 스타벅스, 아이스타인베이글 등 교내 카페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Meal plan에 조금은 덜 질리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적으로는, KC는 공용버스나 트램이 무료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버스에는 홈리스나 인종차별자 등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순 없기에 타게 된다면 늦지 않은 시간에만 친구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램의 경우 학교에서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운타운에만 위치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2026 월드컵을 대비하여 학교 주변이나 플라자 등등 주요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으로 25년 10월말에 오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트램 이용하시면서 더 많은 곳곳을 둘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ansas city에서 놀러갈 때 차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데요. 버스 노선으로는 가기 힘든 곳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매번 친구가 차를 태워주거나 특정 목적지가 같으면 택시비를 1/n 했습니다. 트램이 생기면 많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 친구들끼리 놀 때, 꼭 차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Kansas city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바 거리를 가시는 게 아니면 대게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닙니다.

도움이 되었던 물품을 추천하자면, 침대 시트 깔기 전 진드기 시트, 라면 포트, 블록국, 여행용 세면도구, 슬리퍼(기숙사용), 여행용 슬리퍼(대게 호텔에 슬리퍼가 없음), 한국 화장품 등이 일

것 같습니다.

그 외 정보로는 아마존 프라임 학생 무료 이용 서비스, 미국 카드 발행시 은행별 서비스 비교(저는 BofA에서 발행했으나 Chase가 학생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시 학생 할인(KC는 대게 이용 시 무료), 초반 물품 구매 시 미국에는 묶음판매나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교환학생 끼리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게 Target 이나 Costco에서 구매하는데 비교적 소량이나 청소용품 등은 Dollar tree(한국의 다이소 느낌)와 같은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절약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식품는 오리엔탈 마트, 중앙 마트, Pan Asia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식집은 조선 이라는 식당이 가장 퓨전스럽지 않은 한식집 같습니다. 한식집은 적은 편입니다.

교환학생 파견 이전, 연계전공을 제외한 교양 및 주전공 학점은 이수한 상태였고 연계전공은 파견 학교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한국에서 이미 수강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12학점 중 절반을 주전공으로, 절반은 평소 궁금했던 교양 수업으로 채웠습니다. 들었던 수업은 주로 팀프로젝트 위주로, MGT 256, ENT 315, ENT 361, ENT 327, COMM-ST 270, FILM 230, COMM-ST 456, Theatre 113 입니다. 앞자리 수가 해당 학년 수업임을 의미하는데 크게 상관 쓰지 않고 관심사에 맞춰 수강했습니다. 고학년 수업이거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수업(이 경우 담당 어드바이저 및 교수님과 상담 후 서류 제출)이 아니라면 수강 인원이 초과되어도 교수님께 정중히 메일 드리면 수강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두 번의 수강신청 모두 조금 늦게 신청한 편인데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일일이 들어가거나 검색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조금 더 일찍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면 더 관심있는 수업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한국처럼 OT 주간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OT에서 자세한 수업 방식 들으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대게 수강신청 페이지에 강의내용이 간략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강신청 후 Canvas Student(대학교 포털)에 해당 수업이 기재되면 강의 계획 및 과제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수강신청 후 곧바로 Canvas로 기재되는 것 아닌, 몇몇 수업은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수업은 개강 이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의평을 참고해서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이라면 강의평을 남기는 사이트를 찾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 경영대와 한국 경영대와 가장 큰 점은 한국에서는 경영 내 마케팅, 회계, 재무 등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반면 미국 경영대는 입학할 때부터 마케팅을 전공할 사람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재무를 전공하면 재무를 중심으로 수업을 듣는 편입니다.

MGT 256은 오프라인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자료 및 판례 사례를 올려주시면 알아서 공부하고 Quiz를 푸는 식으로 진행되고 팀프로젝트도 판례를 진행해보는 식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던 수업이었습니다. 경영법이라는 내용 자체는 흥미로워서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었을지라도 얻어가는 것은 적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ENT로 시작하는 수업들은 Entrepreneurship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 자체가 팀별로 앉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업 중 교수님이 특정 주제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모인 의견을 반 전체와 공유하는 식으로 수업이 이뤄집니다. 수업 및 과제가 팀프로젝트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대게 2주에 한 번 정도는 팀프로젝트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ENT 327의 경우는 시간을 적지 않게 투자해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과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해 의논하고 화이트 보드를 채워가는 수업이었기에 다른 수업들보다 높은 수업 참여도를 요구합니다. 매주 리딩 및 퀴즈가 있으며 주차별로 해당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제나 발표 영상을 찍어 피드백하는 과제 등 시간 및 높은 퀄리티를 요구되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던 수업이었습니다.

FILM 230은 참여 보고서에 후기가 많아 수강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만족했던 수업입니다. 이쪽 계열이 아니었기에 관련 계열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영화 기법에 대해 각자 알아서 공부해오고 수업에서는 영화를 봅니다. 영화는 대게 고전영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화 자체에 지루함을 느끼는 한국 교환학생분들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를 본 후에는 특정 장면에서 어떤 기법이 사용됐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유롭게 영화에 대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팀원들과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종이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해당 수업에서는 핸드폰 및 노트북 사용 금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영화도 보고 영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COMM-ST의 경우 언론 방송에 대해 배우고, 팀프로젝트로 뉴스 영상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초반에만 방송 용어나 기법 등을 배우고 퀴즈를 보고 중후반에는 팀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수업에 가도 대게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거나 촬영을 했습니다. 대게 촬영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중후반에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수업이 소규모로 이뤄지기도 하고 1학년 수업이 아니었던 면도 있어 수업 내 학생들이 학교 언론 동아리나 관련 인턴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많아 수업 당시 결속력으로 인한 소외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으나 교수님이 친절하셨습니다.

Theatre 113은 개인적으로 연극 무대 제작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재밌게 수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8:30에 이뤄지는 수업에 출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업이라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수업으로, 교수님께서 자세한 수업내용은 자료로 안 올려주십니다. 수업 자체를 칠반에 그려가시면서 설명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를 본다고 해도 불참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출석해서 필기를 통해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습 기간엔 직접 전동 톱, 드릴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 필기 시에 어려움이 있어 영어 듣기가 약하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KC는 미국식 바베큐가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식 바베큐를 선호하지 않아 지점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점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KC를 느끼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식축구도 유명하니 경기가 이뤄진다면 경기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 학기 동안 Johnson 에서 지냈는데요. 혹시라도 Oak나 Johnson 이외에 기숙사로 배정된다면 메일로 교환학생 임을 강조하면 대게 바꿔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기숙사로 배정되신다면 학교 무료 셔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외의 기숙사들의 위치가 홈리스가 많은 위치가 많아 캠퍼스와 너무 먼 기숙사는 안전 측면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winney center에서 여러 운동 프로그램 및 수영, 웨이트 등 다양하게 무료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초반에 OT나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는데 참여하시면 자연스레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을 겁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진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한일문화콘텐츠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C Berkele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내용

- UC Berkeley 전반적인 평가

  UC Berkeley는 San Francisco에서 지하철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Oakland 에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10위에서 20위권에 항상 올라가는 학교인 만큼 다양한 수업이 있고 학생들의 학업 열정이 남다른 학교입니다. 이러한 열정 때문인지 언제나 학교 도서관은 사람이 끊기지 않는데, 특히 기말고사 2주 전부터는 약 30개의 도서관에 학생들이 꽉 차며 일명 Dead Week라고 부를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교수님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은 조용한 한국 대학 수업과 대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Berkeley는 온화한 기후의 California에 위치한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잔디밭에 누워서 공강 시간을 보내는 사람,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햇빛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은 바쁜 학교생활 와중에도 개인의 시간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고, 저 또한 이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C Berkeley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입니다. Oakland는 노숙자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고, Berkeley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는 한 블록마다 노숙자가 있을 정도로 많고, 간혹 캠퍼스 내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상주하는 노숙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의자에 놓인 가방을 마음대로 뒤적이면서 먹을 것을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소리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경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차의 창 밖으로 총을 연달아 발사하며 운전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상자가 있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열정적인 분위기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국 대학교들에 비해서 UC Berkeley는 학업량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마음 편히 미국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타 학교에 비해 적고 공부에 전념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미국 대학교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UC Berkeley는 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이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미국 대학교 생활을 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학업 난도가 높을 수 있고 치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 상 학업 난이도는 열심히 하면 가능한 정도이기도 하고 교수님도 교환학생을 많이 배려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치안의 경우에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보통 큰 위험은 없습니다. 분명한 단점이 존재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을 유의 깊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숙사

  솔직하게 SAF에서 배정해 주는 Wesley House는 별로였습니다. 연식이 있는 4층짜리 주택으로 1층은 공용 공간이고, 2층은 남자 숙소, 3층은 남자 반 여자 반, 4층은 여자

숙소와 세탁실과 공용 테라스가 있습니다. 한 방에는 최대 12명 정도 머물지만 실제로 몇 명이랑 지내게 될지는 당해 지원자 수에 따라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저는 한국인 2명과 중국인 4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 포함 총 7명).

오래된 시설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었습니다. Wesley House에는 보안 시스템이 1층 공동현관에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심지어 각 호의 현관문에도 보안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즉, 각 호의 현관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나 키 패드가 아예 없어서 누구든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을학기 마지막 무렵 노숙자가 기숙사에 쳐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층 쓰레기 분리수거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노숙자가 기숙사에 들어와서 세탁실에서 옷을 훔쳐 가고 제가 살던 호의 현관문 조명을 깨뜨리고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즉시 SAF에 기숙사 계약 종료를 요청했고 무사히 계약금을 환불받고 다른 사설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에 SAF 측에서 기숙사의 보안을 보충했다는 소식을 알렸지만 봄 학기까지 Wesley House에서 살았던 다른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노숙자가 침입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했었습니다.

UC Berkeley로 교환학생을 고민 중이신 분은 Wesley House의 이러한 상황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숙자가 침입해서 직접적인 안정성의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사가 가능했을 뿐, 원칙상으로는 SAF를 통해서 UC Berkeley로 가게 되면 Wesley House에서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Wesley House의 부족한 보안 시스템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따로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Wesley House에서 지내는 게 외국인 친구나 SAF를 통해서 온 한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BISP Special Focus Program 발표회 날입니다. UC Berkeley에는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다양한 전공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BISP Program으로 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교환학생들은 일정 기준을 채우면 교수님과 함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pecial Focus program에 참여 가능합니다. 보통은 논문을 작성하지만 형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상 제작 같은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류 관련 논문을 작성했고, 학기 막바지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담당 교수님들이 모여서 성과 발표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학문적인 내용의 발표를 10분 동안 하려니 심장이 터질 거 같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발표는 무사히 마쳤지만 무시무시한 Q&A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는 한 명당 5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저는 무려 12분가량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를 흥미롭게 생각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았지만 당시엔 교수님들이 마냥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고 교수님과 논의하고 발표를 했던 순간들을 버텨낸 제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교환학생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가혹한 현실 (또는 어려운 점)

BISP Special Focus Program의 한계점: SAF에서 상담을 할 때에는 천 가지에 가까운 수업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수업 리스트에서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강의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수강신청에서 무조건 재학생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수업은 교환학생은 듣기 힘들고 1학년 필수 전공 강의들도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이 필요하거나 Prerequisite이 필요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 극복 방법

BISP Special Focus Program의 한계점: 저는 인기가 많은 강의는 포기하고 Sociology Class 중에서 전공과 관련 있는 수업 위주로 들었습니다. BISP Program을 주관하는 학과가 Sociology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고 교수님들도 교환학생에게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waitlist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노력에 따라 수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교수님께 인사

하고 저의 상황을 어필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여석이 생기면 저를 가장 먼저 등록해 주겠다고 하셨고, 해당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강신청을 한 순서보다 수업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교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 같습니다.

- 추천 활동

  Naked Run: Naked Run은 기말고사 기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옷을 벗고 달리는 버클리의 전통 행사입니다. 버클리에서의 경험들 중에 가장 이국적이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설마 다 벗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다 벗고 학생들이 뛰어다닙니다. 구경하는 학생들은 환호하면서 응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신기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벗고 뛰는 행사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 모드로 돌아가는 분위기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문화이니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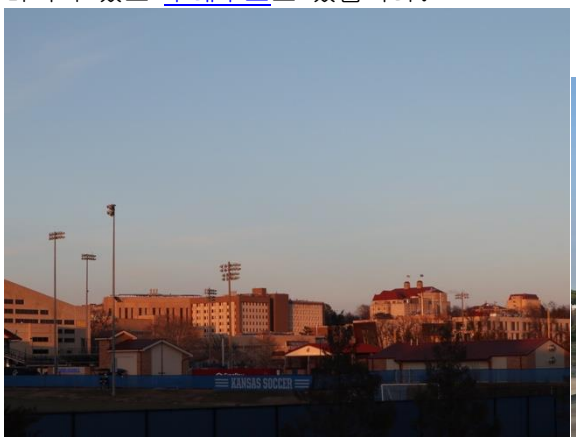
성명	이규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 가족복지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정규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The University of Kansas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위치, 지형

캔자스대학교는 Kansas 주 도시 Lawrence에 있는 대학교로,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시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항까지 혼자 우버를 타게 되면 보통 70-100달러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캔자스대학교도 언덕입니다! 새로 지어진 경영관은 언덕 아래에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은 다 언덕 위에 있는 건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건물이 거의 다 언덕 위에 있기도 했고요..그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버스가 엄청 많이 다닙니다! 버스에 관해서는 교통부분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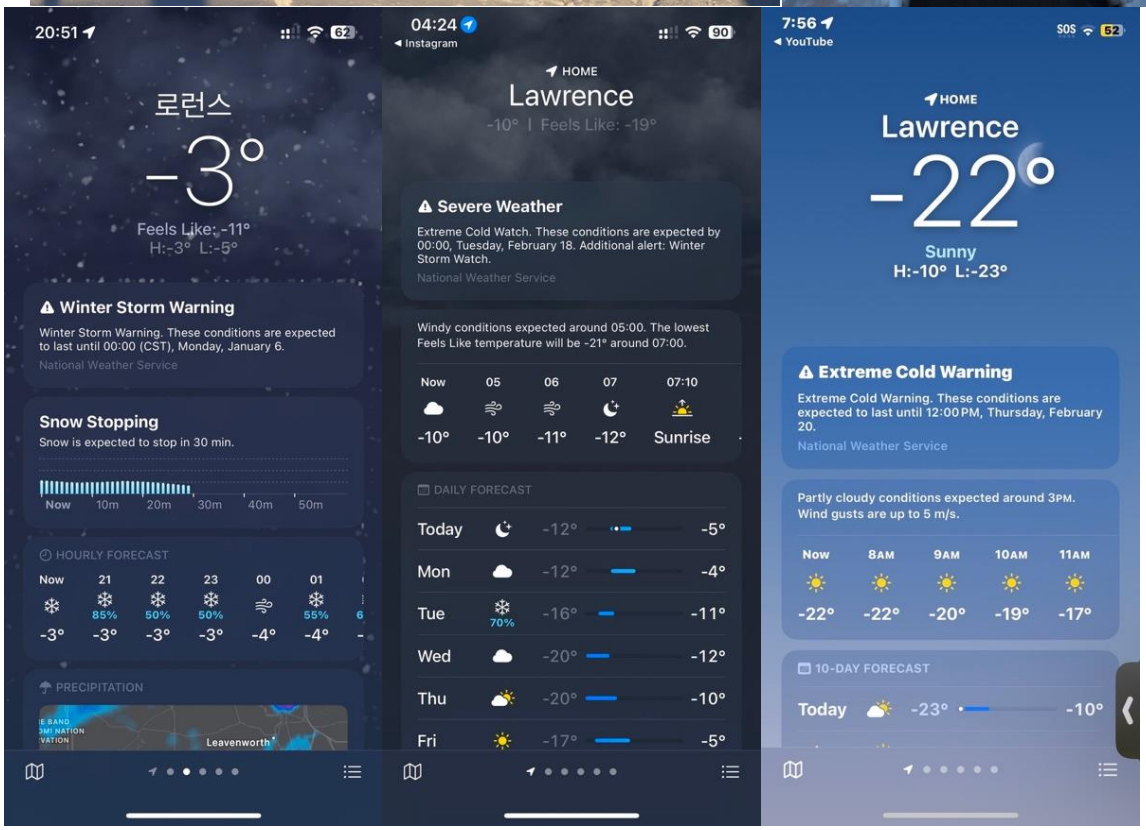
학교 캠퍼스 기준으로 북동쪽에 다운타운이 있고 남쪽에 월마트, 타겟같은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북서쪽에는 F Mart라는 아시안 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라면과 마라탕 재료 등을 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트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7월 기준 임시 휴업이라고 뜨네요. 한인 마트는 없다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월마트에도 김치, 한국라면 다 팝니다. 한식당은 다운타운에 Cafe The Mani 더 마니가 있고 뚜레주르도 있습니다.



- 날씨

가을학기의 날씨는 매우 좋았습니다! 여름은 한국보다 습하지 않지만, 햇빛은 강합니다. 겨울은 많이 춥습니다. 겨울방학때 큰 윈터 스톰이 한 번 왔었는데, 눈이 엄청 쌓여서 3일동안 기숙사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겨울방학에 눈이 왔던 터라, 차도에 있는 눈은 금방 치워졌지만 인도에 눈이 치워지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차가 없는 교환학생은 다니기 약간 힘들었습니다.

이후 봄학기 초까지는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편입니다. 블리자드와 윈터스톰 등으로 인해서 봄학기에 3번 정도 휴교령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기 말로 갈수록 다시 날씨 좋아집니다.



- 교통

캔자스대학교 교통 좋은 편입니다! 로렌스는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있는데, 무료입니다! 학교 내 셔틀버스 느낌이 아니라 시내버스처럼 여러 버스 노선이 있고, 학교 내부만 다니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를 다닙니다. 대부분의 버스들은 월-금 정상운행, 토요일 단축운행,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10시 반까지 운영하는 심야버스도 있고, Safe Bus라고 특정요일(보통 많이 놀러다니는 금, 토)에 새벽 3시까지 운영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방학에는 버스 노선이랑 시간이 축소되는데, 마트와 다운타운 가는 노선은 그대로 운영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어플은 구글맵, Transit, Passio Go 앱 중 사용하라고 하는데, Passio Go 앱 추천드립니다. 가장 정확하고, 버스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wrence Transit]() 웹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공 및 수강 과목

저는 주전공 가족복지학과 복수전공 행정학부를 듣고 있습니다. 캔자스대학교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학 수업은 수강신청을 하기 전, 과목에 대해 학과 사무실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환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수강신청에서 후순위에 있다보니, 수업의 인원이 다 차게 되면 허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공 지식을 배우거나 이후 전공학점 인정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마음 놓고 수강하거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수업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따라서 교양 및 일반과목으로는 **AESP 160: Pronunciation Fundamentals/ Good Grammar for Clear Writing, FMS 380 American Popular Culture of: Modern Horror Film, PHTO 101: Fundemantals of Photography**를, 전공과목으로는 **SW 303: Human Sexuality, SW 540: Introduction to Social Work Research, POLS 302: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PUAD 432: Conducting the People's Business Ethically** 들었습니다. **AESP 160** 영어 수업은 한국인 기준으로는 쉬운 편에 속하지만, 유학생,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예술 관련 수업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진수업인 **PHTO 101**를 들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즐거웠고, 사진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말 틀에 가두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존중 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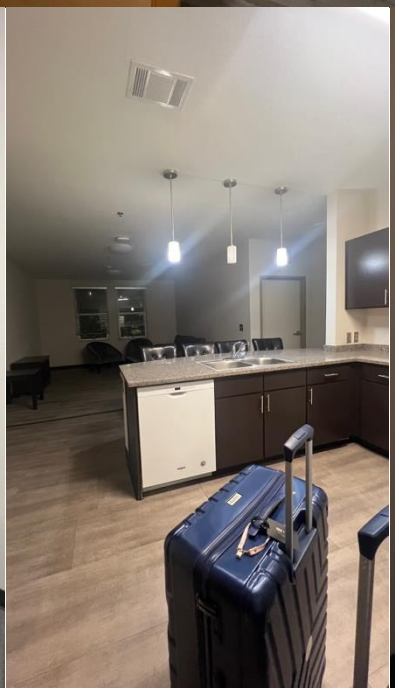
- 수업 방식

절대평가입니다. 학과마다 수업방식의 차이점은 존재하겠지만,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수업은 수업 전 읽기자료를 읽어오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업에서는 내용 정리를 짧게 하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읽어가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할당된 읽기자료를 꼭 읽어가야합니다. 한 과목당 수업 전에 보통 **10-30**페이지 정도의 교재나 논문 읽기 자료를 줍니다. 하지만 한학기당 **4, 5**개의 과목을 들으니,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읽어야하는 읽기 자료의 양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오기 전에 영어 공부는 꼭 하고 오길 추천합니다.또한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쪽지 시험은 존재했지만, 과제 제출이나 발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기숙사

저는 **Stouffer Place Apartment 4-Person with Private Bedroom, Private Bath** 사용했습니다. [2025-2026 Rates|Housing & Residence Life] 참고하시면 기숙사 비교하기 편합니다. 제가 선택한 기숙사가 좀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기숙사가 매우 좋았습니다. 윈터스톰 올 때 학교에 정전이 오곤 하는데, **Stouffer**는 다른 기숙사에 비해 새로 지어진 편이라 시설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을 고려해보면 타고 다니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면 꼭 주방이 있는 기숙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학 기간에는 카페나 교내 식당도 축소운영을 해서 먹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요리할 일이 많으니 주방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6-7**월쯤에 한국에서 기숙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교환학생 친구들 다 쉽게 좋은 기숙사를 잡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다이닝플랜

  저는 가을학기에 **14 meal plan**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남아서 이월한 뒤 봄학기엔 **$440** 플랜 신청했습니다. 다이닝플랜 금액은 카페나 교내식당에서 이용가능합니다. **Grubhub** 앱 설치하고 학교 계정이랑 연결하면 다이닝플랜 금액으로 배달음식 주문 가능합니다!

- 여행

가을방학 때 **LA-> Las Vegas->** 그랜드캐년, 추수감사절 방학엔 플로리다와 마이애미, 겨울방학에는 뉴욕, 봄방학때 캐나다 토론토, 학기 끝나고는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로 여행 다녔습니다. 공항까지의 택시비 약 **10**만원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다보니, 교통비 부담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럼에도 흔치 않은 경험이니 최대한 여행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것 추천드려요.

- 기타

저는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자주가진 않았지만, 캔자스대학교는 농구가 유명하니 꼭 한 번쯤 경기 보러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응원구호 제대로 배울 만큼, 경기 응원 문화가 매우 재밌습니다.

NCAA FINAL FOUR 1986
NCAA FINAL FOUR 1988
KANSAS BASKETBALL
PLEASE STAY IN YOUR SEATS
LIL JON
LIL
20:24
JON
0
0
0

KANSAS BASKETBALL
HAIL TO OLD KU
KANSAS
COLORADO
7:37
PERIOD 0
UNIVERSITY OF KANSAS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지혜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역사콘텐츠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rizona State University ASU(SAF)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a. 주변환경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이하 ASU)는 미국 남서부에 4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대형 주립대학입니다. 2024년 기준, 템피(Tempe) 메인 캠퍼스에는 약 56,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체 등록 학생 수는 약 73,000명에 달합니다. 이 학교는 SAF 장학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좌)2월 겨울의 그랜드 캐년의 모습. 나름 애리조나주의 북부라 겨울에는 눈이 내릴 정도로 춥습니다.
우)템피 내의 명소 중 하나인 Hole in the rock. 사막의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저는 애리조나주의 도심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템피 메인 캠퍼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광활한 암석 사막 지대인 그랜드 캐년의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 교환학생 특성상 매우 건조하고, 한여름인 7-8월 중에는 섭씨 50도, 화씨 120도에 육박하는 날씨로 정말 덥습니다. 장점을 보자면, 가장 추운 1-2월 중에도 겨울 옷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챙길 짐에서 옷의 부피비중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ASU의 가을 학기 시작이 8월 중순 즈음이므로,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40℃(100°F) 정도의 고온건조한 날씨였습니다. 바깥 날씨가 마치 건식 사우나 같아서 언제 어디서건 수분보충이 필수인 날씨이기 때문에, 모두가 크고 작은 텀블러를 구비해 다닙니다. 실내 또한 매우 건조한 편이므로 가시게 된다면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해도 작은 가습기를 하나 구매해 비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활한 미국 땅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량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점이 불편할 수 있지만, 대학가로 조성된 템피 지역 내에서는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편도 $2인 Valley Metro 버스, Light Rail(라이트레일), 무료로 운행되는 Orbit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교통수단만으로도 등하교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Light Rail를 이용하여 다운타운 및 타 지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인마트인 H-mart 역시 해당 노선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 월마트(Walmart), 타겟(Target), 트레이더 조(Trader Joe's) 등 주요 마트들도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지리적 특성상 미국 서부 여행이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해 주변 지역으로 여행하기에 좋은 입지였습니다. 상기 언급한 Light Rail을 통해 PHX 국제공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주말 및 방학 중 국내선 또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매우 유용했습니다. 해당 노선을 이용해 저는 1년 간 캐나다의 동-북-서부 7개 지역 및 미국의 동-남-서부 9개 지역 등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지로 가는 여행 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애리조나 내에서 다닌 여행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b. 학교 환경

ASU의 4개 캠퍼스 중 저는 템피 메인 캠퍼스만 다녀왔지만, 그 한 곳만으로도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공과대학, 경영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등 주요 단과대 건물들이 자리해 있으며, 그 외에도 학생회관, 체육관, 전공 분야별 도서관 등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Light Rail을 타고 약 30분 떨어진 Mesa 지역에는 MIX(Media and Immersive eXperience Center)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Film and Media Production(이하 FMP) 전공 수업은 이곳에서 대부분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메인 캠퍼스 수강이 원칙이지만, 전공 특성상 부득이하게 MIX 센터로 자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른 교환학생들보다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조별과제가 많은 전공강의 특성 덕에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용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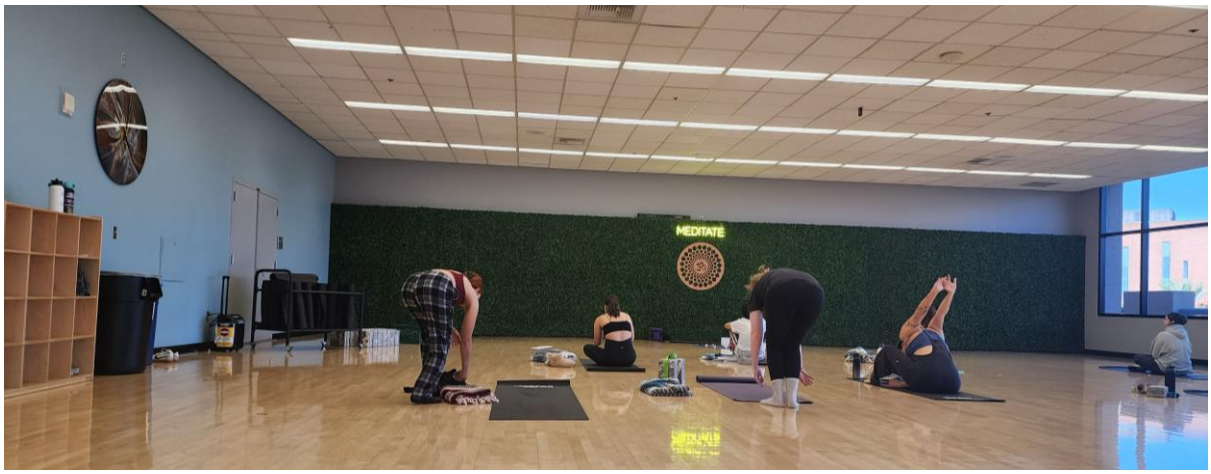
정면에 분수대가 있는 Old Main. 이곳은 보통 날이 화창해 그늘 한 점 없습니다.

ASU 캠퍼스는 매우 넓고 개방적이며, 전체적으로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미서부대학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십분 권장하며 동아리, 단체 주관 행사 및 학교 부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참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중 동아리는 KSA(한인학생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대학 동아리들은 동아리 부외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고도 다양한 학생회 및 동아리의 주관 행사와 프로그램에 친구들과 참여하며 견문을 넓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 4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 단 한 곳 밖에 다녀와보지 못했지만, 그마저도 충분할만큼 부지가 매우 넓습니다. 메인 캠퍼스에는 공대, 경영대, 음대, 미대 등의 건물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학생회관과 체육관, 그리고 4개의 분야별 도서관이 있습니다. Light Rail을 타고 30분 정도 가면 Mesa에 위치한 MIX(Media and Immersive eXperience Center)센터에서는 제가 선택한 전공인 Film and Media Production(이하 FMP)전공의 수업들이 대개 이루어집니다.

ASU 홈에서 치뤄진 대학 아이스하키와 남자농구 경기. 응원단의 응원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관전포인트입니다.

농구와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및 야구 등의 대형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만큼, 대학교 경기 역시 매우 활발합니다. ASU 메인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스타디움에서 보통 대학 홈경기들이 개최되는데, Student app을 이용하면 모든 홈경기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마다 다양한 Giveaway들도 증정되며, 인기있는 Giveaway가 배포되는 날에는 티켓팅을 해야할 정도로 그 인기가 뜨거운 편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강습이 이뤄지는 요가 프로그램. 매주 자율적으로 신청, 출석할 수 있으며, 출석 스탬프를 채우면 교내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아사히볼 교환권을 증정합니다.

ASU 내의 학생 복지 시설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학교 내에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내 운동장에는 다양한 헬스기구가 구비되어 있어 학생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무료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가, 코레오, 전신운동, 사이클 등의 그룹 피트니스 또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꾸준히 몸을 가꾸거나 도전해보고 싶었던 운동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 내의 자체 보험이 있어 가벼운 진료가 필요할 시, 캠퍼스 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비가 한국처럼 저렴한 편은 아니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 상비약을 구매하기를 권유받게 됩니다. 때문에 항생제 처방 등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근 CVS에서 상비약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보험 중 인상깊었던 것은 국내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접종 받아야 하는 가다실이 보험 처리되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차까지 접종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1개 학기 교환 시 최대 2차까지, 2개 학기 교환 시 3차 모두 접종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 SAF 프로그램 지원 시

SAF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을 갈 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아무래도 Tempe 메인 캠퍼스 내의 강의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점인정을 원하실 때에는 최대의 1개의 전공만 학점인정이 되므로, 학교에 지원하실 때에 본인이 원하는 수업이 Tempe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전공인 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 미디어 아트 연계전공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Tempe 캠퍼스의 FMP 전공을 신청하였으나, 막상 대부분의 수업을 메인 캠퍼스가 아닌 MIX 센터에서 수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동 반경이 넓어졌고, 다른 전공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 좋았습니다.

좌) 1년 간 지낸 Off-campus apartment인 Gateway at Tempe의 정문 앞 길.
우) Gatewway at Tempe 내의 수영장.캠퍼스 주변 아파트들에는 보통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지 및 보험과 같은 교환 생활 시 필요한 부차적인 항목들을 대리로 구해주며, 때문에 관련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SAF를 통해 Gateway ay Tempe에 1년 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는 버스로 1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주변 교통편이 10시 전후로 끊기기 때문에 차가 있는 친구에게 라이드를 요청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대학가인데다가, 이 근방의 거주지들은 거의 ASU의 기숙사거나 ASU 재학생 및 관계자들이 거주하는 off-campus apartment라 치안은 미국 치고 괜찮은 편입니다.

SAF 프로그램을 통해 ASU에 교환을 온 한국인 학생은 저 뿐이었습니다. 대개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이들끼리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저를 포함한 룸메이트 총 4명의 공통언어가 영어여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 역시 좋았습니다.

d. 마무리하며

전반적으로 즐겁고 여유로운 서부 대학생활을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미국~영어권의 대학 특성상 많은 이벤트가 있는 것은 가을학기, 날씨가 좋은 것은 봄학기입니다. 할로윈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홈커밍 등의 다양한 큰 이벤트들을 즐기며 미국을 즐겨보고 싶은 분들은 가을학기, 좋은 날씨와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잠시 쉼을 찾고 싶으시다면 봄학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1년여 간의 경험을 적은 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고서를 마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길하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20013 문화예술경영전공
파견시기	2024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7 월 26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내용

1. 파견 동기 및 준비 과정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예술 분야를 다뤄왔지만, 국내에서의 경험에 머무르기보다는 실제로 해외의 문화와 교육방식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전시기획자라는 진로를 향한 고민 속에서, 다른 시선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제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학습과 여러 서류 준비를 통해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파견이 확정되었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 수강 과목 및 학업 경험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서 저는 다양한 시각예술 및 디자인, 사진, 멀티미디어 관련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특히 Photography 1, 2, Graphic Design 1B, Multimedia Production, Ideas and the Visual Art 등의 수업은 제게 실질적인 작업 능력과 비평적 사고를 동시에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수업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사용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시각적 감각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수업에서는 Adobe 툴을 활용해 실제 포스터, 브랜딩 작업을 했고, 이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전시기획을 진행할 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 중심의 열린 수업을 지향했고,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 캠퍼스 생활 및 학교 활동

UCM 캠퍼스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업과 사교활동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도서관, 스튜디오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예술 전공자로서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그룹 프로젝트나 발표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발표자로 나섰던 수업에서는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제 의견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점이 뿌듯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는 학교 행사나 전시회, 로컬 마켓 방문 등을 통해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큰 마트는 월마트가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셔틀이 있습니다. 가서 시간에 맞게 쇼핑하시면돼요. 시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이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게하게 있을 건 다 있어서 즐기기 좋습니다. 거기서도 꼭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기숙사는 크로싱을 꼭 신청하세요. 아파트형식인만큼 시설도 정말 좋고 개인방이 있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밑에 스타벅스도 꼭 많이 가세요. 다양한 음료도 편하게 마실 수 있고 학교가 끝나면 거기서 과제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교환학생 기간 동안의 성장

가장 큰 변화는 시야의 확장입니다. 한국에서의 전시기획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 속에서 움직였다면, 미국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실험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관람객과의 소통 방법 등에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 역시 기획자로서의 감각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경험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으로 보낸 1년은 단순한 학업 이상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때론 외로웠고, 때론 낯설었지만, 그만큼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고 다시 돌아가고싶은 생각입니다. 이 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 후회 없을 거라고 보장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도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영어교육과
파견시기	2024 2학기부터 2025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8월 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 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1. 목표/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저는 전공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학업 및 진로에 집중할 시간이 없고 외국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릴 만한 성격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환학생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권 문화에서 살아보는 게 제 전공, 성격 둘 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1순위 목표는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가지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조금 더 도전적이고 외향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새로운 환경에 가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재미와 도전들을 또 마주하게 되고 처음에 가졌던 목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 목표를 갖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수업

첫 학기에는 전공으로는 스피킹 시험을 봤을 때 부족함을 느껴 제2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American Literature과 History of US(초기 역사)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영어 전공 수업은 대부분 문학 수업인데 한 과목만 들어도 매번 리딩 과제 양이 상당합니다. 또 저는 연극을 좋아해서 theatre 전공 수업이면서도 낭독, 즉 스피치 실력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oral interpretation을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저희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여분 악기가 있어서 교수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저는 바이올린이라 간신히 하나 찾아주셨는데 덜 흔한 악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락커 자물쇠도 신기한 방법이었고 또 미국 band는 현악기가 없고 관악기 위주입니다. 수강신청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또 발레 수업도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후기를 읽어 보았을 때 레벨이 낮은 수업들을 추천하셔서 저도 최대한 1, 2학년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학년 대상의 대형 수업보다는 고학년 대상의 소수 수업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 교수님의 강의력은 매우 좋고 매우 많은 정보를 머리에 넣어주시는데 사실 그걸 듣는 학생들은 저학년 의무 교양처럼 듣는 사람이 많아서 교수님의 강의가 아까웠습니다 (…) 문학은 텍스트 질은 좋았는데 교수님이 토론, 의견을 중시하셔서 최대한 의견 내는 것을 장려하셨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각자 짧게 의견을 던지는 상황이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거의 못 알아들었습니다. 조별로 토론할때는 교실이 소란스러워져서 진짜 안들렸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theatre 수업을 더 많이 들었는데 주로 고학년 수업이고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취미가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꼭 그 수업을 들어보세요! 미국은 전공 바꾸는 것도 쉽고 사람을 전공에 제한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저런 도전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전공으로는 영어 교육 수업이 듣고 싶어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학년 소수 수업이고 teacher program 에 등록한 학생만 듣는 수업인데 저는 교환학생이라 허락해주셔서 듣게 되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도 들었는데 이런 1학점 음악 수업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0학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사람들/성격/태도 이야기

특히 UCM으로 교환학생을 가면 국제학생 친구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노력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인데 이번에 그 중 몇 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외국인에게 관심 가져주는 친구들과 편한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같이 수업을 듣는 classmates(주로 american)들도 사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학생들은 제가 이상하게 말해도 알아듣는데, 영어 못하는 동양인을 별로 접해보지 않은 american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내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더 자신 없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목소리도 더 작아지고 참여도 잘 안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단순히 언어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의사소통, 의사표현의 문제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확실히 의사표현을 해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물쭈물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학기에 저는 교수님이랑 같은 반 친구들이 사담 나눌 때 말을 못 알아듣겠어서 울고싶고 실제로도 울었는데(…) 점점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타격이 없어지고 그냥 다시 한번 더 말해주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그게 우선이 되니까 부끄럽고 자신없는 건 많이 극복되었던 것 같아요. 소형 수업, 같이 활동하는 것이 있는 수업(내 관심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수업이 있을 거예요!) 등이 classmates들과 친해지는 데에 비교적 쉽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한테는 theatre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선 저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인데 그 외향적인 친구들 덕분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마음을 많이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공연 보러가서 말 걸고, 교수님 졸졸 따라니다면서(…) 참여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큰 작품을 같이 만들고, 수업에서도 매일 만나고, final week이라 곧 헤어져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때서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고… 또 첫학기에 같이 발표한 친구랑 잘 맞는다는 것을 느껴서 두번째 학기때 매주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1학년 친구들은 학식당에서 밀플랜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밥 먹기에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것은 music 전공 친구들, 저와 같은 영어교육 전공 친구들은 느낌이 또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다 좋아요. 위에도 썼지만 제가 교환학생 경험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언어가 부족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어 뿐 아니라 성격, 태도도 의사소통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방인이기도 하고 여길 잘 모르기도 하니까 친구들이 인사해주면 그제서야 인사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도와줘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와서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배워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어디서든 마치 사회생활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기분 좋게 대한다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본인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4. 캠퍼스 시설

도서관 스터디룸이 혼자서도 예약 가능합니다. 유니온(학생회관)을 통해 지나다니다 보면 꼭 아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특히 고학년 친구들은 학교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5. 기숙사

저는 첫 학기에는 FITZGERALD에 살았고 국제학생들과도 친하고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는 룸메를 만났습니다. FITZGERALD 부엌이 다른 레지던스 홀과는 달리 방처럼 분리되어 있어서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두번째 학기에는 the crossing에서 편한 한국 친구들이랑 살았습니다. 대부분 국제학생들도 여기 살아서 친구들이 이웃이라 좋았습니다. 근데 암트랙 역이랑 가까워서 기차소리가 규칙적으로 시끄럽게 들립니다. 미국인 친구들은 레지던스 홀 싱글룸도 선호하고, 포스

터녹스를 혼자 쓰기도 하는데 저희한테는 확실히 부엌이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가 나은 것 같습니다.

6. 식사
첫 학기에는 레지던스 홀에 살아서 밀플랜 80끼를 결제해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끼는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제 기숙사랑 가까운 todd에만 갔고, 저는 피자를 좋아했는데 주말에는 피자가 없지만 아침/브런치에는 과일이 있어 좋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러가지 다 갖다놓고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학기에는 밀플랜 25끼를 결제해 친구랑 만나서 밥 먹는 날에만 todd에 갔고, 가끔 칙폴레, 시간없으면 스시, 그리고 요리를 주로 해먹었습니다. 월마트 셔틀은 매주 한 번씩 있는데 차 있는 친구에게 너 월마트 갈 일 있으면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 차가 있고 교환학생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7. 한인교회
학기 초에 목사님이 한국 학생 톡방을 만드셔서 공지하실 텐데, 일요일 아침 차량 픽업 오십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한식을 주시는데 반찬 남으면 싸 가도 되는지 여쭤보세요! 큰 조리도구도 안 쓰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안 와서 속상해하실까봐 저는 계속 갔는데 다음 학기에는 많이 가주세요...

8. 다운타운/프로그램
다운타운에는 작은 상점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쭉 가다 보면 여러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다 있습니다. 걸어갈 수...는 있지만 최대한 차 있는 친구 갈 때 껴서 가세요…

9. 여행
저는 중국인 친구랑 가을방학 보스턴, thanksgiving 연휴 뉴멕시코 로드트립 같이 다녀왔는데 입맛도 비슷하고 편하게 소통해도 되고 영어 계속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겨울방학 여행은 한국에서 온 친구랑 편하게 했고 봄방학에는 시카고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봄학기 종강 후에도 캐나다에 혼자 갔습니다. 정말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0. 그 외 장단점/느낀점
올 때 목표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그때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또 제가 살아왔던 대로 일 년을 살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지키고 싶었는데도 여전히 잘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일찍 자기, 운동, 바쁘다고 혼자 할 일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더 시간 보내기, 리딩 과제 안 밀리기 … 사실 거의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일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매우 다르고, 여전히 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게 저에게는 의사소통에 따른 태도 그리고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바꾸는 건 언제나 사람들이구나.. 이런 깨달음들이었습니다.

혹시 교환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lihyunart25@naver.com으로 문의 주세요!

SSAP 참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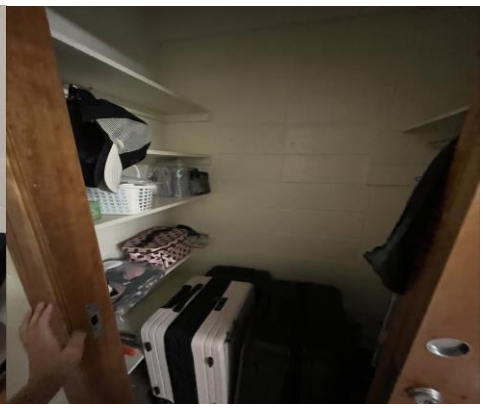
성명	김채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스포츠건강관리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CM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1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UCM 기숙사 & 아파트(2인실 기준)

저는 캠퍼스 안에 있는 Houts라는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이후에는 The Crossing 아파트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두 곳 다 살아본 결과, 저는 당연히 The Crossing 아파트에 사는 걸 추천합니다.

Houts 기숙사는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룸메와 상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화장실은 옆방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저도 처음에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또한 각 층마다 공용주방이 있어요. 그곳에 냉장고도 있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공용 냉장고에 뭘 넣었다가 도난 당했던 적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룸메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고 같이 사용했어요.보통 아파트에 갈 생각을 하고 기숙사는 대충 적어서 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Houts 추천드려요! 다른 기숙사들보다 그나마 깔끔하고 관리 잘되는 곳입니다.

The Crossing 아파트는 개인 방, 주방이 있어요. 확실히 기숙사에서는 요리하고 정리하는 게 번거로워서 잘 안 하게 됐는데 아파트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요리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숙사보다 더 넓고 수납 공간이 잘 되어있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꼭 여기로 들어가세요.



2. OT

UCM에서는 가을학기 개강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OT를 진행해줍니다. 빡센 스케줄 + 시차 적응 +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이유로 저는 이 주간이 새로우면서도 아주 피곤했어요. 하지만 시간 잘 맞추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니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3. 수강신청 및 수업 추천

- 수강신청은 OT 주에 하게 되는데 ISO(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친구들이 도와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강신청을 일주일 전에 해서 수업이 이미 꽉 찼거나 선수과목이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드리면 거의 받아 주셨어요.

- Jazz Dance: 춤에 관심있고 좀 춘다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재밌어요! 과제가 좀 많아서 귀찮고 학기 말에 공연하는 거 빼고..

4. 학교 내 스포츠 시설

(1) Audrey J. Walton Stadium: 더크로씽 아파트 옆 쪽에 붙어있는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 가을 학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과 경기를 진행하니 시간되면 구경가는 걸 추천! 봄 학기에는 행사나 경기가 거의 없어요.

(2) Union Bowling Center: 학교 내 볼링 칠 수 있는 곳. 장비나 시설이 깔끔하고 좋았어요. 가끔 이곳에서 다양한 행사 열립니다.

(3) Jerry M. Hughes Athletics Center: 주로 UCM의 대학운동선수들이 훈련 및 경기를 하는 곳입니다. 가을 학기에 경기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저는 배구를 좋아해서 거의 매번 보러 갔었는데 경기 시작 전/중간/후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열려요.

(4) Student Recreation and Wellness Center: 학생들을 위한 헬스장, 탁구대, 실내트랙, 프리웨이트실, 암벽등반장, 실내코트가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도 잘 되어있으니 미국 가서도 건강 열심히 챙겨요:) 다양한 행사나 종목별 교내 대회가 이곳에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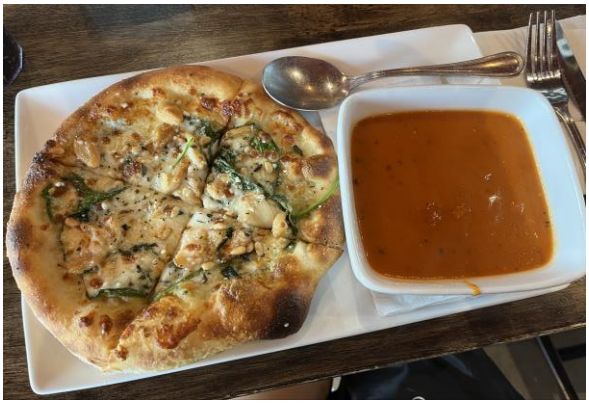
루어져요. 저는 매일 이곳에서 배구를 했어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는데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니라서 근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어요!

5. 학교 내 식당 & 카페

(1) CRUSH: 밀크쉐이크 맛집

(2) Todd, Ellis 기숙사 식당: 메뉴가 괜찮다가도 별로일 때도 많았지만,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밀플랜 구매가 필수이기도 하고 편리성 때문에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3) SPIN! Pizza: 더크로씽 옆에 있는 피자가게. 젤라또도 맛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특히 미니미아라는 세트를 자주 먹었어요. 예를 들면 1인용 피자 + 토마토 스프/샐러드가 제공됩니다.



(4) 유니온 지하로 내려가면 식당이 꽤 있어요. 타코벨, 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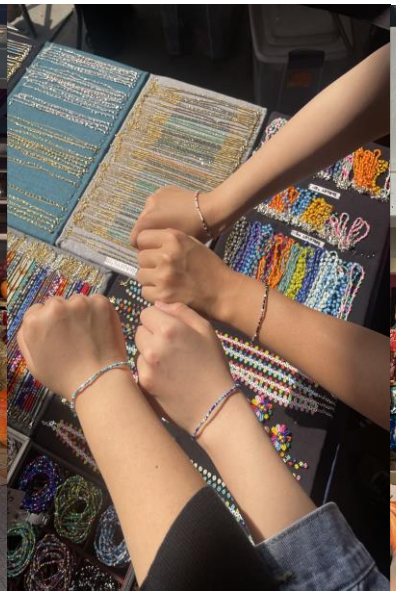
6. 다운타운

더크로씽 기준 10분 정도 걸어가면 다운타운이 나옵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많지는 않지만 잘 찾으면 괜찮은 곳들이 꽤 있어요. 제 추천은 다음과 같아요.

- Magnolia Market: 미국판 베스킨라빈스. 제 추천은 쿠키도우입니다!! 여기 샌드위치, 아사이볼도 정말 알차고 맛있어요.. 토핑 5개 선택가능이요. 생각날 때마다 자주 갔던 곳입니다.

7. 놀러갈 만한 곳
   (1) KC (Kansas City)
   - Worlds of Fun: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잔뜩 있는 놀이공원. 저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스릴을 여기에서 경험했어요. 가끔 날 잘 맞춰서 가면 줄 안 서고 바로 타는 게 가능한 엄청난 곳입니다. 한 4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 KC Zoo & Aquarium, Loose Park, Country Club Plaza, Oak Park Mall, Union Station
- River Market: Breakout KC(방탈출)



- Roeland Park Sports Dome: 배구하시는 분들은 매주 이곳에서 배구를 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 1981 K-chicken: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 치킨이 정말 바삭하고 맛나요! 사이드도 완벽한 맛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 고구마후라이 꼭 드셔보세요!
- B&B Theatres: 워렌스버그와 가장 가까운 영화관
- Gyu-Kaku: 일본식 BBQ

(2) Jefferson City

(3) St. Louis

- Amtrak을 통해 갈 수 있어요.

- 꼭 방문해보면 좋을 곳: St. Louis Zoo, Gateway Arch, St. Louis Premium Outlets

- 치안이 좋지는 않은 편. 저는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마약한 사람이 돈 달라고 따라온 적도 있었어요. 다운타운 쪽은 좀 위험했고, 동물원이나 Gateway Arch같은 곳은 걱정 안하고 즐겨도 돼요.

(4) Florida

- Orlando International Premium Outlets, Universal Studio, Disney Springs, Walt Disney World, Orlando Vineland Premium Outlets

(5) New York

- Brooklyn(Dumbo, Brooklyn Bridge), 코리아타운, Central Pa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oHo & NoHo, New York Public Library, Times Square, The High Line

(6) Boston

- Boston Common, Harvard 대학, MIT, Berklee 음대, Newbury St, 차이나타운

(7) Chicago

- Millennium Park, Riverwalk, Willis Tower, Kyuramen

8. 기타

(1) 한인교회: 매주 일요일마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차량으로 직접 픽업해 주시고 돌아올 때도 기숙사나 아파트로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이동수단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손수 만들어 주신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남는 반찬이나 음식이 있을 경우 밀폐용기를 가져가면 챙겨갈 수도 있어요. 한인 교회에서는 한국의 여러 기념일들을 챙겨 주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외롭지 않게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2) 식당 & 카페

- Sabai Thai Cuisine: 태국 음식점입니다. 쌀국수, 팟타이, 커리, 볶음밥 등 양 많고 맛있어요.

- PHO 4U: 쌀국수, 팟타이, 버블티 맛집
- Insomnia Cookies: 쿠키와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 Yummy's Donut Palace: 버블티 맛집. 도넛도 맛있어요! 한국에서도 버블티 중독이었던 저는 이곳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 CHIPOTLE: 멕시칸 푸드. 이곳은 서브웨이처럼 하나하나 다 주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 힘들겠지만..ㅜㅜ 정말 맛있어요!!! 같이 파는 칩도 맛있으니까 추천추천
- PLAYERS Restaurant: 라자냐, 스파게티 추천

(3) 장보기

- 매주 화요일 저녁에 월마트 셔틀을 운영해요. 월마트는 학교에서 걸어가려면 거의 왕복 2 시간 정도 걸리니까 미리 사야 할 것들 적어 놨다가 화요일마다 장보는 게 편해요.
- Weee!: 한국 먹거리들을 이 어플을 통해서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어요.
- Amazon Prime: UCM 계정으로 회원가입하면 6개월 무료 및 빠른 배송을 받아볼 수 있어요.
- 옷은 Shein, Cider, Marshalls 등에서 샀어요.

(4) 병원

- 미국에서는 최대한 안 다치는 게 좋지만 만약 어디를 다치거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면 참지 않고 가야겠죠. 저는 UCM 학교에서 보험을 들었던 Western Missouri Medical Center에 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다쳐서 응급실로 갔었는데 접수하고 나서 한 4 시간 정도 이유도 모른 채 마냥 기다렸어요.. 한국 병원의 속도와 처치를 바라지 마세요. 이후에 처방 받은 약도 약국에 직접 가서 사야 합니다. 특히 이 병원은 보험을 청구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다른 병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 보내주세요! > ccjung9220@naver.com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수정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11379 스포츠건강관리전공
파견시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CM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7 월 18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약 1년 동안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UCM(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저에게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전공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예습과 수업 녹음 복습, 그리고 교수님이나 현지 친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Computer Science 전공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강했으며, 그 중에서도 백엔드 개발, 알고리즘, 시스템 구조 등 실무와 연결된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중시하는 수업 분위기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는 인상 깊었고, 저 또한 점차 발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기숙사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글로벌 감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낯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영어 실력뿐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직접 현지에서 생활하며 배우는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함지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7월 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에서 24년도 2학기부터 25년도 1학기까지 장학 교환학생을 다녀온 함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약 10개월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1. 위치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UCM지역은 미국 중부 내륙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근처에 도보로 갈 수 있는 다운타운과 차를 이동해 갈 수 있는 Walmart가 하나 있고, 20분에서 25분 정도 걸어가면 다양한 마트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Walmart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셔틀을 제공해주어서,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Walmart에서 웬만한 생활용품은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기에 애매한 비품(ex: 색연필, 옷걸이 등등)은 근처 BSU 교회에서 기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은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다양한 빈티지 마켓이나 상점들이 있고, 카페도 여러 군데에 있는데, Magnolia카페를 제외하면 대부분 오후 1시이면 문을 닫으니, Magnolia나 BSU 옆에 있는 The gathering 카페(17:00면 문을 닫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은 학교에 있는 스타벅스를 추천합니다. 다운타운에 Those Were the days라는 중고 샵이 있는데, 가게가 넓어서 구경할 물품이 많아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Warrensburg 기차역에서 기차(Amtrack)를 타고 약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많이 가는 Kansas City입니다. 캔자스시티는 학교 근교에 있는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식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쇼핑 거리도 있습니다. ISS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하나로 캔자스시티 트립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 캔자스시티 River market과 Legends Outlets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온 것도 충분했고, 학교 사람들과 2박 3일 여행한 것 모두 좋았습니다. 본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St. Louis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는 단연코 쇼핑을 추천합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아울렛이 훨씬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볼거리가 많았고, Black Friday나 Thanks Giving Day과 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금 위험해서 혼자가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과 같이 우버나 리프트 공유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명한 게이트 아치 쪽 만 아니라면 엄청나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암트랙을 타고 40분 거리에는 Lee’s summit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딱 하

루만 투자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도시라는 느낌보다는 소도시의 느낌이 강한데, 건물들이 다 이뻐서 볼거리도 있고, 사진 찍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트랙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할인코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있었던 이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너무 늦은 밤에 캠퍼스 안이 아닌 다른 곳을 다니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숙사 및 식사

저는 가을 학기에는 **Ellis**라는 기숙사에 살았고, 봄학기에는 **The Crossing**이라는 아파트형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먼저, **Ellis**의 경우, 기숙사가 다른 학교 건물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운동센터인 **Rec Center**와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수업하는 건물이나 학생시설인 유니온 건물, 자주 가는 **Todd**식당과는 떨어져 있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 기숙사입니다. 다른 기숙사에 비해 많이 낡았고, 지하에 식당이 있지만 아침이나 점심 말고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나 음악과 관련한 전공건물과 가깝다는 장점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공용 주방이고, 하나밖에 없어 편하게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숙사와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Housing** 부서가 이 기숙사에 위치해 있어, 그 점은 편리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룸메이트였다가 방 바꾸는 기간에 한국인 룸메이트로 바꿨습니다. 원하는 룸메이트가 있다면 방 바꾸는 기간에 직접 방문하시면 남아있는 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간 **The Crossing**은 **Ellis**와 달리, 아파트처럼 집 안에 개인 방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저는 **4**인실에서 살았는데, **4**인실에는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2**인실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때도 저는 공실이 있었고, 원하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Housing**에 같이 방문해서 같은 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룸메이트가 상관없다면 **4**인실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4**인실에는 **2**인용 식탁도 있어 밥 먹기 훨씬 편합니다.(**2**인실에는 바테이블만 있습니다.) 각 층 복도에 세탁실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고, 다른 기숙사와 비교해서 훨씬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Rec Center**와는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건물과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Dining Dollar**와 **Meal pla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ining Dollar**는 학교 내에 있는 식당(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칙필레, 아인슈타인 베이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충전하고 사용했습니다. 학기 중에 추가로 더 주는 이벤트도 있고, 아무 때나 충전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Meal plan 같은 경우, 가을 학기 때 **80**끼 신청하고, 봄학기때 **50**끼 신청했습니다. 저는 **Dining Dollar**나 학교 주방을 많이 이용했어서 둘 다 충분했고, 특히나 **Crossing**에서 살았을 때는 훨씬 더 적게 이용했습니다. **50**끼나 **80**끼 정도 하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Meal plan**이 가능한 식당은 **Ellis** 건물이랑 **Todd**건물에 각각 하나씩 총 **2**개 있는데, **UCM**을 다녀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Todd**를 더 추천하셨듯이, 저도 **Todd**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종류도 다양하고, 깔끔합니다.

3. 학교 수업

저는 영어권 지역학 전공과 문화예술경영 전공을 다전공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학기에는 영어 전공을 수강했고, 봄학기에는 무대 전공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영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티주에 스피킹과 라이팅 시험을 본 후 자신의 레벨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통해 수업을 추천해 주십니다. 이때 추천해주신 수업을 수강해도 되

고, 학과장님께 문의를 통해 다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했던 수업들 중 몇가지를 추천해보자면 제가 수강했던 Spoken English 수업은 성적이 들어가는 발표 4개와 더불어 매주 말하는 활동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발표하는 게 많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친절하시게 잘 알려주시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국제학생 친구들과 편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가 자주 있는 만큼 발표실력이 엄청나게 늘었고, 주제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편한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가 많아서 학기 중에는 살짝 힘들지만 확실히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스피킹, 라이팅과 더불어 국제학 전공의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tudies를 같이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국제 문화보다는 국제 평화나 협정같은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같이 수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관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수업입니다.

또한 봄학기 때 들었던 무대 전공 같은 경우, 저는 Stagecraft 2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수업은 의상을 제작하고, 조명과 음향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으로, 교수님들께서 개념설명과 더불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수업 중에 했던 실습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주십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Lab 타임이 있는데, 이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학과에서 진행하는 연극 준비를 도와주는 실습형 수업입니다. 아주 힘든 일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재미있고, 즐기면서 했던 수업입니다. 전공 신청을 무대과로 하셨으면, Lab 타임 외에 학과에서 진행하는 연극 준비에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경영이 전공이시거나 다전공이시라면 무대과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학과 내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무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전공도 신청할 수 있으니, 수강하고 싶으신 것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타

인터넷 같은 경우에 저는 Mint mobile을 신청해서 이용했습니다. 다른 유심들도 많았는데, 일단 e-sim이라는 장점과 무제한으로 신청해도 가격이 저렴했고, 많은 분들의 후기가 좋아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청해서 갔는데, 미국 가자마자 된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데이터가 빠르지는 않은데, 안되지는 않아서 연락용으로는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빠른 데이터를 기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금을 조금 챙겨갔었는데, 현금 사용할 일은 미국 여행 가서 호텔에 팁 주거나 플리 마켓에서 결제를 할 때 정도로 종종 필요할 때가 있어서 현금은 적당히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 학교 건물(Union)에 있는 ATM기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계좌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은행에서 닫을 수 있으니,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택배가 도착하면 Front Desk에서 메일을 주고, 사인을 한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Weee라는 어플에서 한식을 시키거나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킬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택배 배송 완료 문자가 왔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연락이 없다면, 꼭 프론트 데스크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저는 과자 시켰었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잃어버린 거 같아요..

학교에 친구들이나 교수님들, 행정 담당자분들 모두 친절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알려주십니다. 몇몇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호의적이고, 이전부터 국제학생들을 많이 봐온 사람들이라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합니다. 혹여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문의를 해야 할

때 직접 센터를 방문해 보거나 메일을 넣어서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세요.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모두가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면서 말문도 트고, 같은 과 친구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하면서 언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지내면서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미국은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은 자신만 생각하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가치 있는 경험 많이 쌓아 오시길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조수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영어교육과
파견시기	2024 학년도 2학기부터 2025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CLAN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7 월 7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출발 전 준비한 것들

1) 비자: 영국 1학기 교환학생은 비자가 필요 없지만, 영국 1년 교환학생은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결핵검사를 받았고, 파견 학교로부터 이메일로 CAS letter를 받은 후, student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2) 비행기표: 파견교에서 첫 nomination이 3월 말에 메일이 왔었고, google form application은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4월에는 교생실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결국 5월 초에 핀에어 왕복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핀에어는 왕복으로 예매할 경우, 1번 날짜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왕복으로 해두고 나중에 귀국 날짜를 바꿨습니다.

   항공권은 더 빨리 예매할수록 저렴할 거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짐이 많은 스타일이라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가 학생들에게 추가 수화물 혜택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3) 짐싸기: 저는 위탁수화물 캐리어 24인치 1개(확장형), 기내수화물 백팩 2개를 가져갔습니다. 핀에어 수화물 규정에 따라 캐리어는 23kg을 채웠고, 백팩 2개는 무게 검사를 안 하고 통과했습니다.
   저처럼 짐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라면, 캐리어 1개+백팩 2개 조합 추천합니다. 보통 주변 친구들 보면, 최대 캐리어 2개+가방까지 가져가는 거 같습니다.

   영국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흐리나, 서울의 한겨울처럼 엄청 춥지는 않기 때문에 외투는 코트 1개, 숏패딩 1개, 경량패딩 1개 가져갔습니다. 생활하면서 입을 편한 옷은 최소한으로 챙기고, 여행 때 입을 옷들을 주로 더 챙겼습니다. 영국에서 편한 옷을 사기는 쉬운데 한국 스타일의 예쁜 옷을 찾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여행 때 입을 옷을 고려해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4) 보험: 마이뱅크 안심플랜으로 했습니다.

도착 및 수업

1) 픽업
   영국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한 후, 학교 픽업 버스를 타고 UCLAN까지 편히 올 수 있었습니다. Student center에서 바로 기숙사 키를 받아서 기숙사까지 도착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 오리엔테이션

가을 학기 첫 주에 welcome week로 행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무료 음식 이벤트도 많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파티도 많았습니다. 이때 교환학생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고, UCLan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 수강신청
파견교와의 메일 컨택으로 1년치 강의 수강신청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준 엑셀파일과 UCLan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있는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관심있는 수업들을 신청했었습니다. 시간표가 겹치면 student center에 방문해 시간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쉽진 않았습니다.
시간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global opportunity와 컨택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한 학기에 3과목 12학점을 들었습니다.

4) 동아리
UCLan에는 한국어학과가 있는 만큼 K-society나 K-pop dance society가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K-society에 경우 이벤트 행사가 1학기에 비해 2학기 때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도 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았습니다.

5) 수업관련
4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게 된 만큼, 이미 전공수업은 상명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UCLan에서는 관심있는 과목들 위주로 들었었습니다. (범죄학, 문학, 언어학, 교육학, 비즈니스 등) 1학년 강의를 들어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6과목 모두 시험은 없었고, 성적은 보통 레포트 제출이나 발표로 매겨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최소 40점을 넘어야 pa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도시 및 학교 생활

1) 날씨, 옷
영국이 비 오는 날씨로 유명한데, 제가 살았던 Preston도 정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였습니다. 비 오는 날씨 때문에 특히 모자 달린 후드 집업을 많이 입었고, 모자나 바람막이도 유용했습니다.
겨울에는 4시면 해가 져서 놀랐었습니다. 해가 너무 빨리 져서 1월달에 약간의 우울감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3월말부터는 서머타임으로 해가 밤 9시까지도 떠있습니다.

옷은 정말 잘 입는 것들만 챙겨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몇 벌 구매도 했었습니다. Primark는 가성비가 좋은 옷들이 많고, 아니면 H&M에서 구매를 자주 했습니다. 제 키가 161인데 H&M kids 제품도 잘 맞았습니다. 학교 빈티지 마켓 행사에서도 옷 구매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2)기숙사 및 밀플랜
저는 ribble hall에서 지냈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female only를 선택했었습니다. 6명이서 하나의 부엌과 2개의 화장실을 공유했습니다. 개인 방마다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Ribble hall의 장점은 다른 기숙사와 달리 바닥이 마룻바닥이라 청소하기가 편하고, 근처에 빨래방과 tesco 마트가 있어서 좋습니다. 영국은 밀플랜은 없습니다.

3)학교 분위기, 위치
UCLan이 위치한 Preston은 대학이 중점인 소도시입니다. 맨체스터가 근처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갈 땐 주로 맨체스터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Preston 내에서는 주로 걸어다녔고 공원등이 잘 되어 있어 조용하게 살기에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4)교통

Preston 내에서는 주로 걸어다녔습니다.
기숙사에서 Preston station까지 걸으면 약 18분~20분 정도 걸렸습니다.

5)물가

영국은 외식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기본 15파운드 정도인데 약 2만 70000원정도입니다. 대신에 식재료 물가는 한국에 비해 정말 쌉니다. 계란 6개에 1.35파운드로 약 2500원 정도입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외식보단 요리해 먹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마트는 aldi와 lidl이 가장 싸고, tesco는 club card가 있으면 meal deal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상품도 살 수 있습니다.

6)여행

영국 교환학생의 장점은 주변 유럽 국가를 쉽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씩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고, 영국 내 도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유럽 여행지로는 스페인을 가장 추천합니다. 10월에 바르셀로나, 3월에 세비아를 갔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고, 음식이 다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영국 국내 여행지로는 런던과 에딘버러를 가장 추천합니다.
런던은 관광할 것들이 넘치는 대도시이고, 에딘버러는 해리포터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ston이나 맨체스터 근처에 생활하신다면, 레이크 디스트릭은 꼭 당일치기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멋진 호수와 드넓은 자연풍경,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있다면, 여행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10월이 날씨가 괜찮고, 11월부터는 추워지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월 말부터 다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5월 초에 종강을 하기 때문에 종강 이후에는 계속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해서 여행 전에 그 나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가는 편이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꼭 해볼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행 갔을 때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들이 즐거웠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7)기타활동(친구 사귀기, 학내 프로그램 등)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면, 확실히 적극적으로 먼저 모임이나 활동에 참가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이벤트 행사나 도서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었습니다.

파견 소감 및 교환학생 지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교환학생은 오로지 대학생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약 10개월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었지만, 혼자서 생활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고 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혼자 여행도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키울 수 있었고 이전보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 교환학생 기간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의 시간동안 저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기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많이 도전했습니다. 1학기 때에는 투어라이브 크루 활동, 모인 파트너스 활동을 하였고, 2학기 때에는 고우해커스 지구촌 특파원 활동, 위즈덤아고라 신문사 이벤트 부서 활동까지 하면서 교환학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소중한 추억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모성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가족복지학과, 행정학부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CM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2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 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6 개월 교환학생 장점

1) 언어능력 향상

아무래도 교환학생은 영어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피부로 몸소 느끼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어떤 것이던 강제(?)적인 상황이면 배움이 빠르다 생각하기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2) 다양한 곳 여행 가능

저는 여기 머무른 5 개월 동안 뉴욕, 미서부, 토론토, 시카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 비행기 값이 훠얼씬 싸기때문에 내가 가보고싶었던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게 좋았습니다 :)
여행을 다니면서 몰랐던 세상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3) 한국과는 다른 문화 경험

확실히 한국은 유교사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인사도 고개를 숙여 한다던지,
어른 먼저라는 문화가 강한데 미국은 정말 자유로워요!
분리수거도 안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저엉말 많답니다.
(교환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종이빨대가 무슨소용인가 ..라는)
친구들도 나이를 묻지 않아요!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친구라서
나이를 묻는걸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구요!

4) 성적 따기 더 쉬움

지극히 저의 주관이지만 미국은 중간/기말고사가 사실 비중이 크지 않아요
참여도와 과제, 수업 중 토론과제 같은 참여형 수업이 더 비중이 크기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못봐도 A,B 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5) 학교 내 복지가 많음

정말 놀랐던 것은 무슨 행사를 하면 펜, 티셔츠, 컵, 컵홀더, 장바구니, 텀블러 등
생활에 쓰기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나눠줍니다 (진짜 마구마구)

그래서 초반에 정말 많이 받아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

6)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음

요즘은 K 뷰티, K 팝, K 드라마를 모르는 친구를 찾기 힘들정도로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공통점도 많고, 재미있게 얘기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에도 거리낌이 없어 인종차별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아요 :)

---

6 개월 교환학생 단점

1) 언어능력 늘어날때쯤 한국으로 가야함

이제 마지막 2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번 학기보다 귀도 열리고, 대화도 잘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6 개월은 정말 적응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 시스템, 친구들, 문화에 적응할 때쯤
6 개월 교환학생분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연장해서 더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2) 외국인 친구와 기숙사 사용

저는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 이렇게 두번 기숙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친구들은 문화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생활패턴도 정말 다양해요!
특히 한국음식을 해먹을 때면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하면,
그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더라구요.. ㅎㅎ
또, 외국인 친구들은 남자친구/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2 명 방에 사는거였는데 거의 3 명-4 명과 사는 기분 ... ㅎ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심신안정'의 이유로 동물을 데려와 살 수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미리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3) 어딜 가려고 해도 10-20 마일은 기본

일단 저는 미주리라는 미중부에 거주 중이고, 마트는 걸어서 40-50 분,
패스트푸드점도 왕복 1 시간-1 시간 반은 기본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학교 헬스장, 볼링장, 음식점 등 다양하게 학교 캠퍼스 내에서 먹을 수 있지만
한번 나가려면 우버비로 10 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답니다 ㅎㅎ

4) 고립된 생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곳을 가더라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나가려면 같이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하거나
친구에게 부탁해야 공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도 셔틀을 매주 화요일 마다 운행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의 기숙사나 헬스장에서만 지내게 되더라구요 ㅎㅎ

5) 마약과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됨

사실 저희 학교는 마약이 금지라 노골적(?)으로 하는 친구는 없는데
파티나 주차장을 돌아다니면 마약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
그리고, 흡연을 정말 길 한가운데에서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길ㅃ..)
너무 당연하게 간접흡연을 하고있더라고요

6) 높은 물가와 환율

제가 8 월 12 일에 왔는데, 지금 환율이 거의 100 원이 올랐어요 ...
그래서 물가나 환율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한국 돈으로 다시 계산하고 사게 되더라구요 .. 정말 너무 비싼 물가 ;;; ㄷㄷ
그리고 학비가 거의 3 배입니다 ..^^ 한학기당 1000 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커요

7) 수업 적응의 어려움

저는 처음에 수업을 듣고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들께 다 메일을 돌리고
(교환학생이라 이해가 느려 죄송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수업을 딱 한 학기 마치면서 저는 다음 학기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2 학기는 조금 더 여유롭고, 교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ziri65/223739745778 더 많은 정보들은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m0z1r1 다양한 영상들도 업로드했으니 여기서도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짐을 정리할때 쓰면 리스트도 첨부해드립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잘 챙겼다템, 괜히 가져왔다템, 쓰긴쓰는데 여기서 살걸템 등
다양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용량 확인

기내 수화물 : 100ml 이하, 1 인당 1L, 투명한 지퍼백(20cm*20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 인당 지퍼백 1 개만 기내소지가 가능

보안검색 : 카카오톡 **'항공공항공사 보안검색 및 신분증 챗봇'**
ㄴ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가능

위탁 수하물: 500ml, 1 인당 2L
23KG 가방 2 개, 크기(삼변의 길이의 합) : A+B+C= 158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촬영 장비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가기전 준비하면 좋은 것 '장기정지 신청'

U+ **장기정지 신청** (MMS 를 제외한 모든문자수신가능)
ㄴ 맴버십 다시 돌아오는가? —> 약정이나 멤버십은 미국가는 자정부터 올스탑!
다시 취소하면 VIP 멤버십 사용가능
13 일에 정지하면, 12~13 일 넘어가는 자정에 수신발신 모두 정지
귀국할때 **내가 직접 전화**해야 전화해야 **해지가 가능함**

체크인 팁

공항에서 **비자 때문에 아시아나 셀프체크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SSSS 도** 당첨되어서 (혼자가는 여성/남성이 잘 걸린다는 소문..)
시간이 더 지체됐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3 시간 정도** 일찍 가니 무리 없이 체크인하고 티켓발권도 했습니다!

기내 팁

: **코랑 입술이 엄청 건조**해요! 코랑 입술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줄 물건을 챙기는 것을 추천 !
장시간 비행기를 타게될테니 **넷플릭스나 OTT 영상 미리 다운**받아가는 것도 추천

바지는 짧은바지에 긴팔 슬리브 입는거 추천 - 기내가 추워요
비행기에 들고타는 짐을 최소하면 좋아요! (최대한 기내용 캐리어에 쑤셔넣기)

저는 가는 날 **아시아나 항공**(쌈밥이 맛있대서)을 이용했는데 무게가 2 키로 초과했지만 봐주셨는데, 이건 케바케인듯 합니다 ㅎㅎ

저는 심지어 열이 나서 다른 친구에게 약을 빌려 먹었어요...! 친구도 아팠던거보니 종종 이렇게 아프기도 하는 것 같으니 약 챙기는 것도 추천!

기내용 가방

꼭 챙겨템

적당한 약 (타이레놀, 두통약,해열제)
1 회용 가글
립밤
목베개
노트북
아이패드
보조배터리
에어팟
접이식 우산
선글라스
각종서류 **(DS-2019, 비행기 e 티켓, 여권, servis 수수료 영수증, 입학허가서, 신분증, 비자사본, 여권사본, 증명사진)**
지갑
충전기

필요하면 챙겨템

압박스타킹
셀카봉
이어플러그
마스크팩
돗자리
텀블러
펜,노트
카메라
모자
국제학생증

위탁용 가방

꼭 챙겨템

<음식>
햇반 (가서 바로 밥먹을 2 개정도)
블럭국 (다다익선)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
김
코인육수나 다시마

<물건>
화장실 욕실화 (바닥 구멍뚫린거)
손톱깎이 세트

미니빗자루
탁상용 거울
비닐봉지, 지퍼백
물티슈
코인티슈
수저세트
핫팩
칫솔/치약
옷장방향제
멀티탭
포스트잇
빨래망
여성용품 * 여성분들만 (1-2 달쓸정도)
캐리어 네임택
음식보관 집게
압축팩 M 사이즈 ! (L 은 큰감이 있어요)
돌돌이
수건 4-5 개 (한국에서 쓰는 수건크기 잘 안팔아요, 그리고 질이 별로에요)
테이프식후크, 레버식 흡착 후크, S 자고리
빗
L 자파일
매트리스 진드기 제거 키트
빨래바구니
충전선 (필요한만큼)
건전지 (종류별로 조금씩)
박스테이프 (미국 비싸요)
싹스틱 (저는 4 개 챙겼어요)
전기장판
머리끈
변압기 (많을수록 좋고 비싼거 안사고 다이소꺼 사도돼요)
플라스틱 그릇 (다이소에 전자레인지 가능용기 있어요)
가위(작은거), 칼(작은거) - 택배 시킬때 유용

<상비약>
보령약국 종로 5 가 (약 저렴!)
인공눈물
감기약(많이) - 종합감기, 목감기, 코감기
위염약
지사제, 소화제
항생제 (처방받아오기)
버물리

<옷>
많이 챙기지마세요 여기서 무조건 사서입어요!
저도 많이가져오고 후회했습니다..
절대. 절대. 많이 가져오지마세요 여행하시면서 옷 많이 사게되실거에요
가져오신다면 **바지,속옷,양말** 많이 챙겨오세요! (사이즈가 중요한 옷)

양말 (많이)
속옷
모자 1 개만
잠옷

운동복
패딩
크록스
슬리퍼
운동화
조거팬츠나 편한 옷

<화장품>
폼클렌저
클렌징워터
수분크림
면봉
화장솜
웨지퍼프 *사용하신다면
마스크팩 (구하기 힘듦)
렌즈액
선크림 많이
겨드랑이 제모기
립앤아이라무버티슈

필요하면 챙겨템

<음식>
라면 (구하기 쉬워요)
볶음김치
비빔면소스
무말랭이

<물건>
여행용휴지
핸드폰거치대
치실
공책 (마트에서 400 원이면 삽니다)
고데기
헤어드라이기 (전압 안맞으면 괜히 들고오지 마세요)
줄자
눈썹정리 칼
다용도 꽂이
미니 선풍기
편지지
향수
핸드크림

<상비약>
버물리
파스
밴드

<옷>
두꺼운 옷 예쁜옷 잔뜩 가져와야지 절대 XXXX
반팔도 돌려가면서 예쁜거 입어야지 XXXX
신발도 많이 XXXXX

<화장품>

여드름패치

절대 챙기지마 템 *지극히 개인적

펜 (형형색색 펜 필요하거나 펜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챙기세요!
여기서 활동을 하거나, 이벤트하면 펜 한무더기 받습니다)
공책 (굳이,,)
라면 (여기 1 달러에 구매 가능)
샴푸, 린스, 섬유유연제,세제 (가져올하등의이유가없음)
다용도꽂이 (그냥 행사하면 오조오억개 생겨요)
샤워 필터기 (머리 분리형 아니라 어차피 못써요)
헤어드라이기 (전압 안맞아서 가져와도 만족스러운 바람은 안나옵니다.. 그냥 사세요)

제발 옷 많이 챙기지마세요..
저도 여기서 산 옷들만 잘입고, 여행다니면서 옷 정말 많이 사시게 될겁니다!
하다못해 학교 후드티도 정말 많이 입어서
간소화해서 가져오시고, 바지/양말/속옷은 많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출처] [UCM 미국 교환학생] ep3-2. 교환학생 짐 정리 및 필수템 | packing list 공유|**작성자** 모지리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서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주전공: 글로벌경영학과, 다전공: 휴먼AI공학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025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SAF)
자매교명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 월 18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교환/방문학생을 떠나게 된 이유 및 학교 선택 이유

저는 현재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공이며 휴먼지능정보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두 전공 모두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다양한 분야를 배우다 보니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하면 특정 분야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UC 버클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과 미국 대학교 중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UC 버클리를 선택한 이유는 제 학문적 관심과 목표에 더욱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버클리는 이 두 분야를 접목한 과목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역에 관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2. 출국 전 준비사항

- 토플 점수

저는 2월 말까지 학교에 토플 성적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때 토플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분들은 적어도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 학원을 다녔고 2월에는 혼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주 5일 이상 학원 수업을 들으며 라이팅과 스피킹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글라이더라는 토플 모의시험 사이트에서 5번 이상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며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점수, 서류 제출일이 상이하므로 SAF와 상담하고 난 후에 토플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영어 면접

버클리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자기소개서가 아닌 영어면접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버클리 관계자분과 새벽 1시에 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면접의 느낌보다도 상담의 개념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미래의 커리어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공 과목들 선정에 관해 조언을 주시고 끝났습니다. 어떤 학문적 목표가 있는지 설득력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 공부 이외에 Bay area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SAF 코리아와 모의 면접 연습을 진행하여 실전 감각을 익혀서 실제 인터뷰에서는 자신감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혼자 연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비자 신청

비자 신청 과정은 상당히 세부적인 절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거의 10가지가 넘어가서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버클리로부터 받은 I-20 서류를 포함해 모든 요구 서류를 완벽히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SAF에서 알려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애매해서 걱정이었는데, SAF에서 대체할 수 있는 Letter를 작성해주셔서 안심하고 남은 인터뷰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가 새로고침이 20분마다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 후,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긴 대기 시간에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상 인터뷰는 질문을 하나만 하고 마무리되어 어리둥절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Are you staying for one semester?”

답변: “ Yes, just for 5 months”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기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비자 인터뷰를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질문을 거의 3~4개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인터뷰를 받느냐에 따라 질문 내용이나 양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 현지도착 후 진행된 사항과 수강신청 과정

UC 버클리에 도착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시차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강이 8월 28일이었기 때문에 도착하고 나서 약 10일 정도의 시간동안 버클리에서 진행하는 오티, CPM 믹서, 스케밴져 헌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개강 전에 미리 신청해서 학교 투어도 할 수 있으니 미리 강의실 위치 파악해놓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Berkeley time이라고 수업 시간이 정각에서 10분뒤에 시작을 하는데, 건물 간 간격이 넓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학교 투어를 신청해서 강의실 미리 알아놓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강 신청은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기 과목의 경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국제 학생이다 보니, 버클리 재학생이 먼저 등록한 후에 남은 과목들을 수강 신청할 수 있어서 수강 신청 기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듣고 싶은 수업들에 모두 참여하면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겹치는 과목들은 1시간씩 나눠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20개가 넘는 전공들을 신청해서 드랍하고 넣고를 반복했습니다. 많은 국제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고 과목 선정을 할 수 있다는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백업 과목까지 계획해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4. 숙소 배정 및 숙소 생활

Wesley House에서 지내면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중국인 친구 한 명과 한국인 친구 한명과 같이 방을 사용했습니다. 웨슬리 하우스에 입주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SAF에서 진행하는데 성향이 잘 맞는 친구들과 같은 방이 되어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있어서 통학하는데 수월했고 공강 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수업 가기 좋았습니다. 1층과 4층에 스터디룸이 있어서 시험기간에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5. 수업 외 생활 (클럽활동, 학회활동, 친목활동, 여행 등)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버클리 VS 스탠포드와의 전통 라이벌 경기인 Big Game을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고 있어서 경기가 재미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22 대 21로 따라잡으면서 경기 마지막 2분 남기고 24 대 21로 승리했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응원의 열기로 가득 찼고, 풋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10월에는 Economic model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The Greek Theatre에서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인 라우브의 콘서트를 버클리 캠퍼스 안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에서 듣는게 특별했습니다. 라우브 콘서트 이후에 또 콘서트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바로 콘서트 다음날 무계획으로 라스베이거스로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마룬5의 콘서트를 보러가서 라스베이거스의 밤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공연 도중 마룬5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제임스의 생일이어서 관객들과 함께 콘서트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6. 유학 중 느꼈던 부분 (힘들었던 점, 보람된 점, 새롭게 배운 점, 깨달은 점 등)

교환학생 도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어적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컸습니다. 특히, 수업 중 활발한 토론 문화와 교수님과의 office hour 시간이 처음엔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점차 수업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를 극복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의견을 논리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용적인 학문 접근 방식을 경험하며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점이 유익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 친구들과 스포츠 이벤트와 콘서트 관람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체계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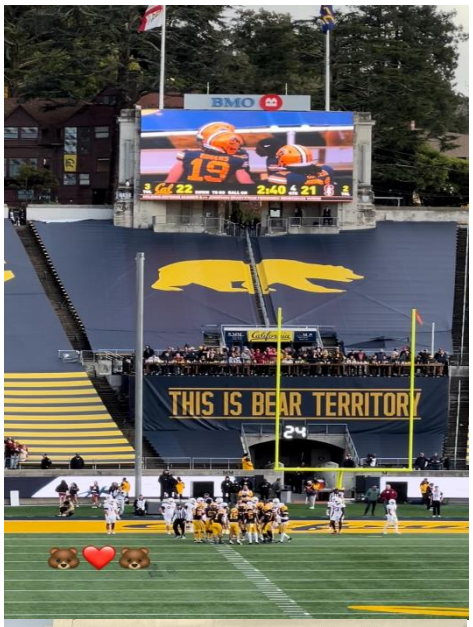
7. 유학을 마친 후 계획 (복학 후 학교 생활, 인턴십, 졸업 후 계획 등)

이번 가을학기를 버클리에서 보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원래는 한 학기만 있으려고 했지만 한 학기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버클리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에는 버클리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과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활용해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나아갈 지 알아보고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학을 접목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졸업 후에는 더 학업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대학원을 진학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분야로 학업을 이어나갈지 고민이지만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입니다.

8. 방문학생 경험이 미래 커리어 계획 및 커리어 스킬 개발에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제 커리어 계획과 미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강의와 discussion section을 통해 참여형 수업에 익숙해져서 의견을 논리적으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며, 나중에는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Economic Model수업에서 데이터 분석과 경제학 관련 프로젝트(에어비앤비 지표 분석)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 전공과 직결되는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경제 분석이나 국제 경영 관련 분야에서 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어서 팀플 문화도 서로 달랐는데, 각 나라의 강점들을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글로벌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다방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여의정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주전공: 글로벌경영학과, 다전공: 휴먼AI공학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025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SAF)
자매교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SULB)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 월 18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2024학년도 가을학기와 2025학년도 봄학기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 학교 선택 이유

경영대학 학생으로서, 저는 다양한 경영학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특히 마케팅과 경영학 관련 법률 과목 등 폭넓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CSULB는 제 학문적 관심과 잘 맞았으며, 실무 중심의 수업들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성향이 있어, 장기간 머물게 될 교환학생 환경의 기후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CSULB가 위치한 롱비치는 연중 온화한 기후이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평균 기온이 약 25도 전후로 유지되는 등 쾌적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겨울철에도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아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기후적 장점은 제가 수영, 골프 등 신체 활동이 포함된 수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계획과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로 CSULB에는 다양한 physical activity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 학문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학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저는 커리큘럼의 다양성과 쾌적한 날씨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CSULB를 교환학생 대학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 및 주변 환경

학교는 기본적으로 평지에 위치해 있어 교내에서 수업을 들으러 이동할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규모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 안에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한지 고려하여 수업 시간표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방문했던 건물 중 하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층마다 다른 분위기를 제공해 날마다 원하는 환경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1층은 컴퓨터실로 많은 학생들이 노트북이 없는 경우 이 곳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공부를 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조용한 독서실처럼 운영되어 혼자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5층은 소음을 내도 되는 층으로, 팀원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도서관의 전반적인 환경이 매우 좋았기에 시험 기간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일찍 가야 할 정도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교내에 있는 프렌차이즈 음식점들과 기숙사 식당을 이용했기에 평일에는 교외에서 식사를 해결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내에는 Subway와 El Pollo Loco 등 프렌차이즈 식당들이 있어 간편하게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 한 끼에 약 14달러로 다양한 메뉴가 매일 제공되어 공강 시간이 길거나 여유가 있을 때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한 학교 후문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대형 마트인 Target이 있어 필요한 물품을 급히 사거나 수업이 끝난 뒤 생필품과 식재료를 사기에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 수업

첫번째 학기인 2024학년도 가을학기에는 Principles of Marketing(MKTG), International Business(IB), American Language Advanced(ALI), Swimming, Self Defense 수업을 수강하였고 두번째 학기인 2025학년도 봄학기에는 Intro to Law&Business Trans(BLAW), Japanese, Golf, Archery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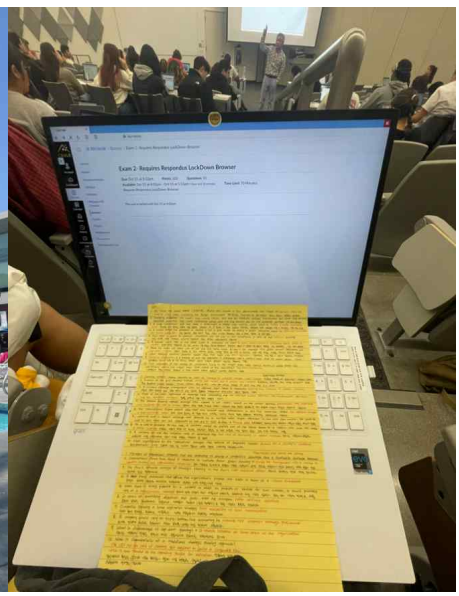
전공 과목 중에서는 International Business 과목이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수업을 듣고 싶었었는데 이 수업은 내가 원하던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국제 무역, 국제 마케팅 등 국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박적인 내용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3시간이었고 수업을 수강하고 일주일 내에 온라인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씩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뉴스 기사를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에세이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수업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중간중간 계속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계속 그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교양 수업에서는 Japanese 수업과 Swimming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환 학생 기간 중 일본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며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Japanese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인원인 18명 정도로 매우 소수의 수업이고 주 4일 수업이었기에 수업 분위기가 매우 활기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매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퀴즈 시험을 보며 단기간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반 친구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기에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금방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말하기 시험도 있었기에 친구들과 말하기 시험 공부를 같이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파이널 시험에서 말하기 부분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wimming 수업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꼭 듣고 싶었던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갔으니 물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첫시간에 테스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저처럼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기초반,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초급반, 그 다음 중급반과 상급반으로 나누어 수영을 지도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 자체가 너무 무서워 기본적인 호흡법과 물에서 뜰 수 있는 기본 동작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한 결과 마지막 파이널 시험에서는 자유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서 잘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한학기 열심히 수업을 수강할 결과 자유형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매우 놀라시며 급격히 늘어난 실력에 매우 칭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CSULB에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며 정말 뜻 깊고 잊지 못할 시간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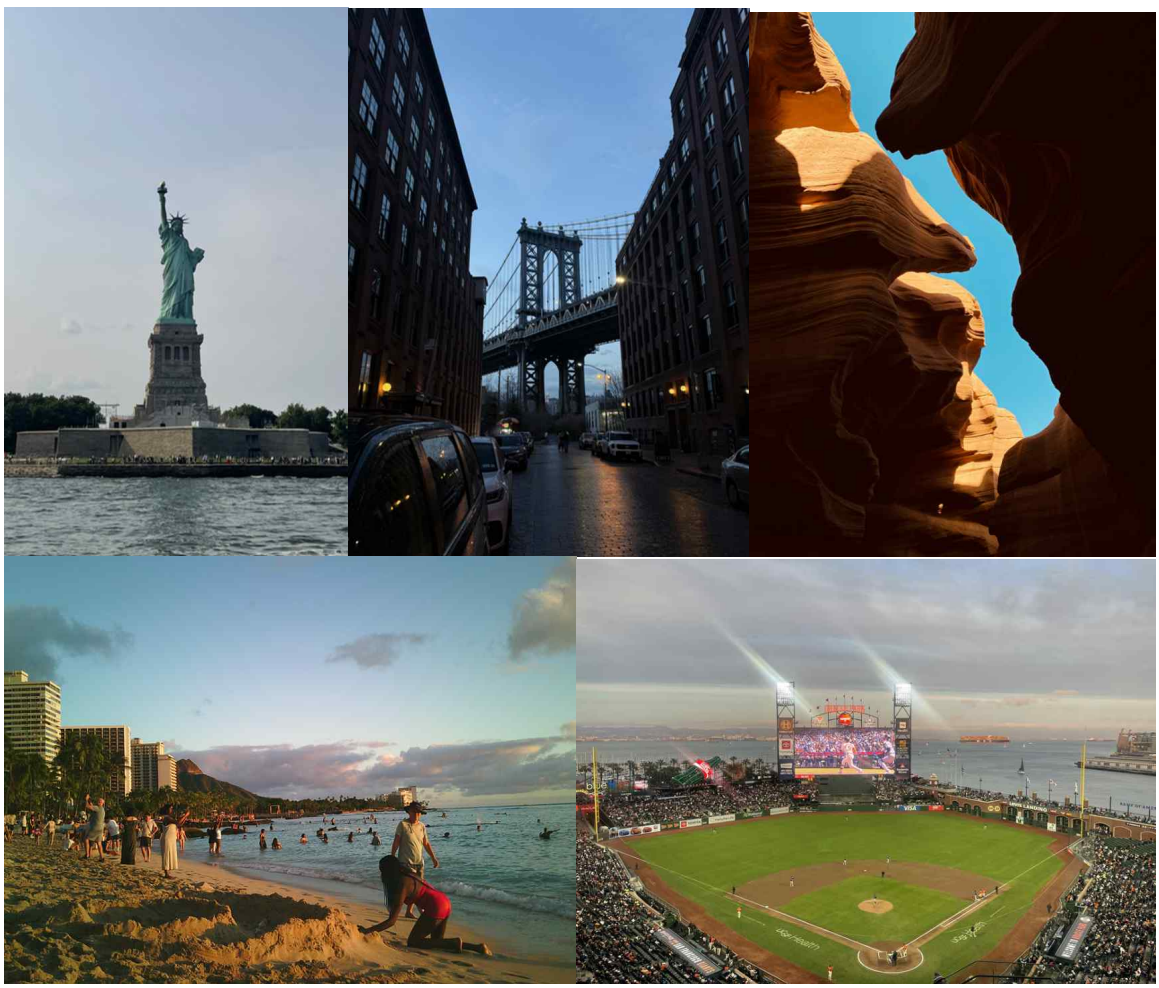


- 전반적인 생활 & 수업 외 생활

보통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공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학교 수업과 과제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거나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ong Beach는 LA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말마다 LA로 자주 놀러 갔습니다. 또한 LAX 공항이 가까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근교로 여행을 다녀오기에도 좋았습니다.

가을학기와 봄학기에는 각각 일주일 동안의 방학(가을방학, 봄방학)이 있어 이 시기도 여행하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Los Angeles, San Diego, San Francisco, Las Vegas, New York 등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저에게 매우 소중했고, 뜻깊고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가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 핀테크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현지 생활 및 환경]

MSSU는 미국 미주리 주의 조플린(Joplin)에 위치한 소도시의 대학교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캠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Northpark Mall이라는 쇼핑몰이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차가 없는 국제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입니다. 또한, 도보 약 15분 거리에 Lion Stop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장소는 차량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편입니다. 룸메이트나 차량이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페이스북 내 국제학생 그룹에 가입하여 셔틀을 신청해 월마트나 아시안마켓을 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친구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Uber나 Lyft와 같은 택시 앱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DoorDash 앱을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플린은 시골에 가까운 도시이지만, 공기가 맑고 일몰이 매우 아름다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및 식사]

기숙사는 East Hall, Lion Village, Quads, Apartment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부엌이 필요하다면 Quads나 Lion Village Suite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두 기숙사는 가격이 다소 높고, 방이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개강 후 기숙사 변경 요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원하는 기숙사 배정 여부가 불확실하며, 배정받기까지 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Quads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며, 1인실에 각자 화장실이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한 수업 건물들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기숙사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Lion Village Suite은 1인실이지만 두 명이 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방 간의 방음이 약한 편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라도 실내 냉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긴팔 옷을 준비하거나 아마존을 통해 전기담요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반드시 Meal Plan을 신청해야 하며, 저는 일주일에 10끼로 구성된 최소 플랜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는 주로 학교 내 카페테리아와 Lion Dens에서 하게 되며, 학생증에는 약 $200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 피자, 샌드위치, 음료 등의 음식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Meal Plan은 매주 초기화되기 때문에 미사용 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음식이 점점 질리게 되기 때문에, 10끼 플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플랜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고, 저 또한 기숙사에서 자주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수업 경험]

- **Crime Scene Investigation I** : 범죄 현장 조사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입니다. 현장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보고서 작성 등 실습 위주의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범죄 관련 용어가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하고 도와주셨습니다.

- **L4: Academic ESL Skills** :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을 균형 있게 배우는 수업이며, 국제학생만 수강합니다. 부담 없이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었으며, 기말에는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Intro to American Culural Studies** : 미국 헌법, 선거 방식,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문화를 다루는 기초 수업으로,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 **Personal Adjustment** : 기초 심리학 수업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나 감정 조절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며 대규모 강의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과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 **Database Management Systems I** : 전공 학점 인정을 위해 수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개념과 구조를 학습합니다. 매주 퀴즈가 있으며, 기말 프로젝트 발표 과제가 있습니다.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국가별 문화 차이와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배우는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 **Level 5: Advanced Reading** : 영어 지문을 통해 독해력과 어휘력을 강화하는 수업입니다. 영어 지문에 익숙해지고 영단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국제 학생들만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며,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독해 시험이 진행됩니다.

- **Asian Civilizations** :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수업으로,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활동 및 교류 프로그램]

- **International Club** : 국제 학생들에게 학교 행사 및 주요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인스타그램 단체방에 가입하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 **Friendship Family** : 사전 신청을 통해 현지 가족과 매칭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가족과 매칭되는지에 따라 활동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시는 가족을 만나, 매주 주변 도시로 여행을 다니거나, 때로는 집에 초대받아서 추수감사절 등의 미국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 **Conversation Partner** : 현지 학생과의 **1:1** 매칭 프로그램으로, 미국인 친구를 사귀고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남경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 2025학년도 1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rkansas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6월 1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Arkansas State University라는 학교에서 2024학년도 8월부터 2025학년도 6월까지 1년 정도의 교환학생 생활을 한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22학번 김남경입니다. ASU에 생각이 있으신 학생들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보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ASU는 Arkansas 주의 Jonesboro라는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도보로 갈 수 있는 음식점이 많지 않고, Subway, 중국 음식점, 맥도날드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음식점들은 우버를 이용하거나 차량이 있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도보로 30분 거리라고 하더라도 걸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우버를 이용하면 편도 약 13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공항에 갈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장보기는 Walmart, Target, Kroger에서 가능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Walmart와 Kroger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ASU에서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므로, 미리 예약하거나 차량이 있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타운은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가게 된다면 베트남 쌀국수와 일본 음식점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른 주의 대도시와 비교하면 할거리가 적고 조용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음식점으로는

- Los Arcos (멕시칸)
- Mamasang Sushi & Grill (일식)
- Cracker Barrel (미국식 가정식)

이 세 곳을 추천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본촌(한국 치킨)과 Panda Express도 생겨서 선택지가 조금 늘었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 분위기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저는 첫 학기는 LLC 기숙사에서, 다음 학기는 CP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이외에도 ASU에는 다양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LLC는 원래 제가 살고 싶었던 기숙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기숙사에 빈자리가 없어서 친구와 함께 룸메이트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냈던 방은 4인 1욕실 구조(4bed 1bath)로, 욕실을 중심으로 두 명씩 나뉘어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을 4명이 함께 사용해야 해서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개인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와 잘 맞아서 1학기는 재밌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개인방을 원하신다면 NPQ, CP, Red Wolf Den, Pack Place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이 필요하신 분은 NPQ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CP, Red Wolf Den, Pack Place) 중에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학기 때는 CP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개인방이어서 확실히 생활이 편했고 주방이 있어 직접 요리해 먹기도 수월했습니다. 또 수업 듣는 건물과 가까워서 거리적인 이점도 컸습니다. 다만, CP 1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근처에 나무가 많다 보니 벌레나 큰 거미가 자주 나와서 생활하기가 꽤 불편했습니다.
기숙사를 선택하실 때는 생활 스타일, 개인 공간 여부, 주방 유무, 위치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

랍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다면 기숙사 생활도 충분히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습니다.

Meal Plan: ASU에서는 아파트 형식이 아닌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밀플랜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저는 첫 학기에 115 Block + $700 Flex 플랜을 선택하여 생활했습니다. 115 Block은 다이닝홀에서 한 학기 동안 115번 식사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700 Flex는 스타벅스, 학교 내 마켓, 기타 음식점(칙플레, Howl's 버거, 피자, 스시)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다이닝홀 음식을 자주 이용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금방 질리기도 하고 입맛에 맞지 않아 Flex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All Flex 플랜으로 변경하였고, 훨씬 더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All Flex를 선택해도 원할 경우 다이닝홀도 Flex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가볍게 방문할 수 있어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eal Plan을 고민하신다면 All Flex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가 팁으로, 학기 말쯤 Flex가 많이 남는 경우 스타벅스 텀블러, 키링, 기념품 등을 미리 구매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학기 끝나기 2~3주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Flex를 소진하기 위해 몰리기 때문에, 예쁜 상품은 금방 품절되곤 합니다.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미리 서둘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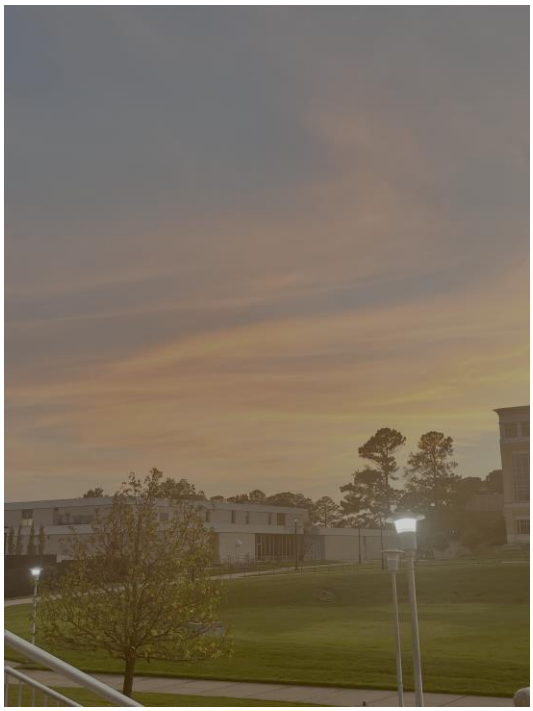
학교 생활: 첫 학기에는 총 13학점, 5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중 4과목은 전공 과목, 나머지 1과목은 교양 수업인 Archery였습니다. 확실히 전공을 영어로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응용문제보다는 기본 개념 중심의 문제가 많아 어느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말고사는 대부분 전 범위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국 수업은 한국과 달리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많고, 팀 프로젝트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초반에는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실력 향상과 영어 실습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 학점 인정보다는 새로운 수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Archery 수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양궁 자세, 활 쏘는 법 등을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전공보다는 교양 과목 위주로 수강했습니다. 그중 들은 과목은 Softball - 야구와 유사한 스포츠로, 경기 규칙과 플레이 방법을 배우며 직접 실습도 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Oral Communication - 발표형 수업으로, 총 4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영어 회화와 발표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공 수업은 준비만 잘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으며, 교양 수업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이외의 활동으로는 가을 학기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할로윈 파티 - 가을 학기 최대 행사로, 코스튬을 입고 참여하면 훨씬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NEA Fair - 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놀이기구 축제로, 다양한 기구를 탈 수 있어 꼭 한번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풋볼 경기 - 가을 학기 동안 ASU 풋볼 경기를 볼 수 있으며, 학생은 무료 입장입니다. 친구들과 한두 번 정도 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외에도 학교 행사에서 무료 티셔츠나 굿즈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자주 있으니 잘 챙겨보세요. 봄 학기에는 할로윈처럼 큰 축제는 없지만, 농구 경기, 야구 경기 등이 열리며, 이때도 가끔 무료 티셔츠나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ilent Disco라는 한 학기에 한번 열리는 독특한 행사로 헤드셋을 끼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파티가 있는데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파티입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과 가까워지면 다양한 파티나 모임에도 초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기타 및 비용: ASU에서는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멤피스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이 셔틀은 주로 멤피스의 Farmer's Market에 데려다주는데, 이곳에서는 한국 반찬이나 과자 같은 아시안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인기가 많은 셔틀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탁 및 건조는 기숙사 내 공용 세탁실을 이용하게 되며,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겹칠 경우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잘 맞춘다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는 코인 대신 학생증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도 간편합니다. 체육관 시설도 매우 잘 되어 있어 쾌적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헬스장 외에도 농구, 피클볼, 배드민턴, 요가, 스피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비용관련해서는 저는 장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개인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SU는 다른 미국 대학에 비해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한 학기 기준 약 6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와 여행비까지 포함하면 1년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생활 스타일이나 여행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저는 교환학생 기간동안 텍사스, 뉴올리언스, 올랜도,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뉴욕, LA, 라스베가스, 시카고, 시애틀 등 다양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도시를 직접 돌아다닌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각 도시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동안에는 가을방학, 추수감사절 방학, 겨울 방학, 봄방학, 종강 후 등 다양한 여행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여러 도시를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다양한 지역을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느낀점: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낯선 땅에서 혼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먼 지역이고, 저와 제 친구 외에 같은 학교에 한국인 교환학생이 아무도 없어 생활 정보나 소식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조금씩 영어에 익숙해지고, 수업에도 적응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1년동안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국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었고, 이 경험은 앞으로도 저에게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채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교환학생 관련 개인적인 팁]

1. 많이 배우고자 한다면 정규 수업 듣는 것을 추천
   영어가 조금 안 되더라도 정규 수업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교환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은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려운 수업이더라도 제때 과제 제출만 잘해도 B+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정규 교육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전공 수업 70% 이상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귀가 많이 열렸고, 과제하면서 작문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2. 필요한 것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교환학생 담당부서 참조 걸고 메일 보내기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메일 보내세요. 저는 초반에 기숙사 배정받을 때 우선 순위로 신청한 곳이 아닌 Hospital Hill 기숙사로 배정받았었는데,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곳인 데다 인근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메일로 변경 요청해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교환학생 담당 부서인 'UMKC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UMKC-ALI' 참조 걸고 교환학생이라 학교에 연고도 없고 위험한 지역이라 우려된다, 교내 기숙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교환학생 담당 부서에서 해결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담당 부서뿐 아니라 교환학생 관련 부처와 소통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상황이 의사소통을 통해 유연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호텔이든 어디서든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꼭 소통을 통해, 때로는 단호하게 컴플레인하셔서 불편한 점 없이 지내다 오시길 바랍니다 :)

3. 알바 추천
   J-1 비자 소지자일 경우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Handshake라는 어플을 통해 그때그때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2학기 다녀오시는 분들은 여행 계획이 없다면 방학 동안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방학 기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방학 동안 본가로 돌아가고, 캔자스 시티는 겨울에 눈 오면 식당이든 가게든 셧다운할 정도로 폭설 오는 날이 꽤 있어 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Student Union에 있는 교내 Bookstore에서 캐셔로 근무했었는데, 한국에서 알바 해보신 적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이 없을 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었고, 학기 초 또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아니라면 한 시간에 손님이 한두명 올 정도로 한산해서 공부하거나 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보통 2인 1조로 근무하고 시프트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같이 일했던 친구랑 가장 잘 맞아서 밖에서도 따로 만났었고, 근무할 때마다 손님 없으면 잡담 나누면서 즐겁게 시간 보냈습니다. 매니저님도 잘 챙겨주셔서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서점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알바해보는 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공고가 뜨면 미루지 말고 바로 그날 메일 드리고 담당자 만나러 가보세요. 저는 별다른 면접 없이 바로 일 시켜주셨고, 근무하는 중에도 제 부족한 부분들 많이 이해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답니다. 일할 때 쓰는 영어 표현도 많이 배웠어요.

[기숙사]

UMKC는 기숙사가 총 4곳으로 교내에 2개, 학교 바깥에 2개 있습니다. 그 중 교내 기숙사인 Oak Hall을 추천드리고, 또 다른 교내 기숙사인 Johnson Hall은 수업 들으러 갈 때 오크홀보다는 좀 더 걸어야 합니다. 온도에 민감하다면 오크 홀 추천드려요. 방 옵션 중 총 4인이 쉐어하는 옵션(2인실 두 개가 화장실 1개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을 희망할 경우, 존슨은 방 1개에서만 온도 조작이 가능해서 그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크는 방 별로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강의 추천]

- FILM230 (영화)
  전체 강의 중 약 30%는 다양한 기법들을 배웠고, 나머지는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영화를 분석하는 가벼운 그룹 활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새로운 눈으로 감상할 수 있어 견문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감상이 주였지만 전혀 수준 낮지 않았고 교수님도 열정 넘치고 재밌으신 분이었어요. 시험도 없어서 수업 시간 외에 따로 공부할 게 없으니, 수업 난이도 밸런스 조절하는 목적으로라도 한 번 들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ACCTNG210 (회계 기초)
  교수님 강의력이 좋았습니다. 우리 학교 글로벌경영학과에는 회계 수업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신청했는데, 쏙쏙 이해되게 가르쳐주셨고 오히려 숫자다 보니 언어 장벽 없이 이해하기에도 더 쉬웠습니다. 시험 총 3번, 쪽지 시험 한 번, 매주 과제가 있어서 시간 투자는 필요했지만 보람차고 재밌었습니다.
- ENT327 (창업&앙트러프러너십)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배운 점이 많은 강의였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창업가가 되어 사업 기획부터 잠재 고객 인터뷰, 밸류 체인 도출을 거쳐 약 10쪽의 사업소개서를 제작하는 강의였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고, 과제도 많고 발표도 있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했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꼭 들어보세요.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한 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활]

- 날씨
  캔자스 시티는 기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8월에 갔는데 최고 기온 19도인 날도 있었어요. 캐리어에 여름 옷만 챙기지 마시고, 긴팔 옷도 꼭 챙겨가세요! 특히 미국 사람들 더위 엄청 타서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어요. 실내에서라도 필요하실 거예요.
- 팁
  보통 15% 정도 냈는데, 직접 와서 서빙하고 계속 체크해주지 않는 곳에서는 팁을 안 내도 됩니다. 카페에서는 팁 안 냈어요.

[교내 인프라]

- Roo Pantry: 사과, 양파, 바나나, 우유, 파스타면과 같은 식재료 및 생리대, 바디워시 등 생활 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Student Union 건물에 있습니다.
- Roo Campus Recreation; Fitness program: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좋지만, 교내에서 제공하는 피트니스 클래스들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힙합 댄스 등등 다

양하게 있습니다.

- Roo Wellness: 아플 때 간단하게 진료 받고 약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앞 Whole Food Market 건물에 있어요. 미리 방문 예약하고 가야 합니다. 가다실 안 맞으신 분들은 무료 접종 가능하니까 꼭 꼭 혜택 받으세요!!!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 항목이 아니어서 70만원 이상 드는 예방 접종이에요. 그 외에 립밤이나 콘돔 등 비치되어 있습니다.

[짐 관련]

저는 갈 때는 캐리어 2개 가져갔고 급하지 않은 짐은 우체국 선박 택배 이용했습니다. 박스 한 개당 비용은 6~7만원 정도 들었고, 받는 데 1달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귀국시에 짐을 박스로 부칠 계획이라면 이런무빙 (https://erunmoving.com/) 추천드립니다. 여러 한국 배송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업체가 박스 3개 기준 40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했고, 어려운 점 있을 때 카톡 문의 드리면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문제 없이 잘 부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한국 해외배송 업체 이용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해요. 박스를 직접 픽업하러 와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도 픽업 서비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직접 오피스 가서 부치는 방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꼭 일주일 전에는 하세요!! 픽업이든 직접 부치든 날짜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기 직전에 신청하면 택배를 전달 못하고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막바지에 너무 바빠서 귀국 하루 전날 알아봤는데 접수 가능일이 아니었어요. 급한대로 Fedex 이용해서 부치려고 했는데 택배 두개에 100만원 넘게 불러서 결국 미국 친구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꼭 미리미리 하세요 …

저는 처음엔 1학기로 갔는데 연장해서 총 2학기를 다녀왔을 정도로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학기만 하기에는 4개월 남짓이라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을 보내고 오든,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의 경험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는 교환학생 분들도 조심히 다녀오시고, 혹시라도 이외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게 있다면 chaemin_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소정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무대미술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025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7월 2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Theatre: Design/Technology Area(Beachelor of Fine Arts)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1. 파견 대학 정보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미국 미주리 주의 Warrensburg라는 조용한 대학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이라, 전체적으로 한적하고 안전한 분위기였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저녁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 학교는 캠퍼스 내에 경찰이 상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학교가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교환학생이 아니면 아시아인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인이 드물다 보니 편견 없이 먼저 말을 걸어주며 다가오는 현지 학생들도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경계심부터 들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히 친해지고 싶어서 건네는 스몰토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픈 마인드로 다가간다면 친구를 사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먼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다양성과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문화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캠퍼스와 다소 떨어져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트를 가려면 도보로 약 30분이 소요되며, 마지막에는 인도가 없이 차도를 건너야 해서 위험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 걸어갔다가 차도를 건너기에는 어려워 보여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중간에 친구를 만나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학교에서 매주 화요일에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기숙사 및 다이닝

   저는 North Ellis 와 The Crossing 건물에서 각각 한 학기씩 거주해봤습니다.

   먼저 Ellis는 교환학생 모두가 그렇게 추천하는 기숙사는 아닙니다. 방학 기간에도 머물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건물이 다른 생활 공간들에 비해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약간 외딴 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하에 Dinning Center(맛있지는 않음)가 위치해 있어 식사를 해결하기 편리하고, 근처에 Rex Center나 **음악, 사진, 디자인 관련 수업 건물**이 가까이에 있어 해당 전공 수업을 수강할 계획이라면 위치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고, 룸메이트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오히려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Ellis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즐기시거나, 좀 더 쾌적하고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기숙사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The Crossing**은 **아파트 형태의 기숙사**로, 전체적으로 Ellis보다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주방, 개인 침실이 구분되어 있어 마치 집처럼 편안했고, 방학 기간에도 추가 비용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는 두 기숙사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해** 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3. Theatre 수업
제가 교환학생을 신청하기 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들의 후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과연 나의 전공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처럼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는 교환학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Theatre과에서는 한 학기에 최대 2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르며, 모든 학생이 **배우, 제작, 디자인, 연출** 중 한 역할을 선택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 **세트 디자이너 어시스턴트**와 **소품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실제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인데다, 모든 회의와 작업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해서 진행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친절했고, 제가 낯가림만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물어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만 있다면,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배움은 물론 현지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졸업 작품을 위한 중요한 전공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기 계획을 미리 고려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느낀점
대학교 때문에 처음으로 혼자 상경해서 살았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타지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주변에 좋은 친구들만 잘 사귈 수 있다면 외로움이나 한국이 그립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 교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더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 사고의 깊이도 커졌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란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아가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문화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그 자체가 즐거웠고, 제 안의 포용력도 조금 더 넓어졌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소통이 **언어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은 진심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교환학생 경험은 스스로

얼마나 마음을 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는 꼭 배우고 오겠다!'는 자세로 가신다면 분명 성장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교환학생을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한가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 25년 7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2024년 여름에 토플을 준비한 후 겨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정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영국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규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적었고, 자매교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도 빠른 편이라 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UCLan은 영국의 프레스턴이라는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고 물가가 비교적 싼 지역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식료품점이나 생활용품점도 도보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기차로 맨체스터 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이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런던 같은 대도시에 비해 소매치기가 적고 학교의 보안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하면서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기숙사

저는 사설 기숙사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해 UCLan 기숙사를 사용했고 가장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인 Derwent Hall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에 85파운드로 총 3,618.57파운드를 1년간 내야 했지만 개인 방이 있었고 방 안에 세면대도 있어 편했습니다. 한 층에 두 개의 화장실, 한 개의 주방이 있고 총 6명이 그것을 같이 사용했지만 불편한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책꽂이, 서랍, 옷장, 세면대가 있고 이불과 베개, 매트리스 커버는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도착한 당일에 직접 TJ hughes나 Pound stretches에 가서 구매할 수도 있고, 아마존에서 배송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닥이 카펫이라 물청소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방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옵션은 다 똑같지만 바닥이 마루바닥인 Ribble Hall을 추천드립니다. 방이 한 명이 쓰기에 충분히 넓었고 수납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냉장고는 냉장고와 냉동실이 붙어있는 큰 냉장고 하나, 미니 냉장고 하나, 미니 냉동고 하나를 플랫메이트 6명이 나눠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도착했을 때 한 명이 냉장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부엌에서 한 명씩 마주칠 때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를 한 후에는 부엌 공간을 나눠서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및 쓰레기통 비우는 담당도 정했으나 아무도 지키지 않아서 후반부에는 하는 사람만 하기는 했지만 저는 운 좋게 깔끔한 플랫메이트가 두 명 더 있어서 셋이 돌아가면서 비웠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만약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의 Residence 팀이나 24시간 보안 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도꼭지가 막히거나 라디에이터가 안 꺼지는 등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학교 팀에 전화했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숙사는 위치가 좋아서 강의실과의 거리가 대부분 도보 10분 이내였고, 도보 5분 거리에 테스코가 있었습니다. 한국 식재료를 파는 오리엔탈샵이나 리들, 알디와도 멀지 않아서 식료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빨래방과도 매우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무엇보

다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과 가까워서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2) 수업

시간표를 짜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과목의 시간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메일로 시간표를 조정해도 되고, 영국 도착 후에 스튜던트 센터에 직접 가서 시간표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강 전까지 조정하면 됐기 때문에 저는 스튜던트 센터에 가서 시간표를 계속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웬만하면 조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1학기 개강 전에 시간표를 다 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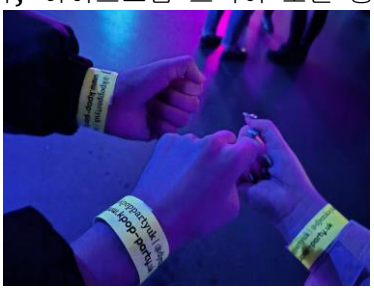
저는 대부분 1학년 수업을 들었습니다. 1학기에는 범죄학 수업, 문학 수업, 아시아 냉전 체제 수업을 들었고 2학기에는 경영 수업과 범죄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두 시험이 없고 과제 대체여서 패스를 받기 쉬웠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과제 대체인 것 같고 교수님이 말하신 키워드를 잘 기억해서 쓰면 패스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학기에 들었던 History of Criminal Justice 수업은 직접 학교 근처의 감옥에 현장학습도 가보는 수업이라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 학기에 2~3개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공강이 많이 생깁니다.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강을 활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3) 학교 프로그램

9월에 학기 시작 전에 일주일간 Welcome week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케이팝 파티, 무료 햄버거 및 디제이 파티, 무비나잇, 카라오케 나잇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정보는 학교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료로 팝콘 및 피자, 음료수 등을 주고 '웡카'를 보여줬던 무비나잇 행사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 투어, 아이스크림 트럭이 오는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진행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동아리 박람회, 한글날 행사, 재패니즈 데이 등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이 많은 만큼, 행사 또한 다양합니다. 한글날 행사에서는 한복 입기, 달고나 게임, 인생네컷 찍기 등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UCLan에는 한중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에서 한국인과 영국인을 한 명씩 버디로 짝지어 주기도 합니다. 영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소품을 판매하는 박람회나 빈티지

샵을 학기 중에 열기도 하니 소식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여행

저는 영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휴일과 공강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휴일은 크게 10월 말에 일주일 리딩 위크, 12월에 약 3주간 크리스마스 휴일, 2월에 일주일 리딩 위크, 4월에 3주간 부활절 휴일로 총 네 번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영국의 유명한 도시는 다 돌아보고 다른 유럽 국가도 최소한 4개 이상 여행하는 것이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여행을 갔습니다. 휴일에는 대부분 영국 밖으로 나가서 유럽 여행을 했고, 학기 중에는 공강을 활용해 영국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런던, 에든버러, 맨체스터, 블랙풀, 사우스포트, 레이크 디스트릿, 요크, 버밍엄, 리즈, 카디프, 리버풀 등 대부분의 유명 도시를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약 10일간 머무르며 바스, 세븐시스터즈 등 근교 여행도 많이 했으며 여행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도시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인상 깊고 추천하는 도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근교가 예쁜 런던과 해리포터로 유명한 에든버러이지만, 하이킹이나 자연 경관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는 레이크 디스트릿이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해서 프레스턴과 가까운 곳이 아니면 1박이나 2박 이상 했으며 숙소는 거의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을 이용해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 외에는 대부분 방학 기간이나 종강 후에 여행을 했습니다. 가본 여행지는 스페인(바르셀로나, 세비야), 아일랜드(더블린), 프랑스(파리, 스트라스부르), 스위스(인터라켄 지역),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독일(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그리스(산토리니), 체코(프라하)가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할 때는 플릭스 버스를 사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고 학생 할인을 해주는 박물관이 많으니 학생증을 소지하면 좋습니다. 저가 항공 이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 캐리어 없이 배낭으로 여행했고 캐리어를 챙겨야 하면 친구와 하나를 나눠서 같이 짐을 챙겼습니다. 여행지 중 저는 스페인의 세비야를 가장 재밌게 다녔습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밤 늦게까지 연 식당이 많아 밤 늦게까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날씨가 좋아 우산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5) 꿀팁

- 생활비는 식비에서 많이 아껴야 해서 저는 가장 저렴한 영국 식료품점인 리들이나 알디에서 대부분의 식료품을 샀습니다. 외식비는 물가가 비싸서 한 끼에 1인당 2만원 이상 써야하고 맛있는 식당도 별로 없어서 요리 해먹는걸 추천드립니다.
- 한국 식료품은 제 기숙사에서 5분 거리였던 far east oriental shop에서 샀습니다. 희귀한 재료가 아니면 간장, 고추장, 김치, 라면 등 대부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레스턴과 가까운 대도시인 맨체스터에 한국 식료품점인 oseyo가 있습니다. 저는 맨체스터를 꽤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oseyo를 가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 생활용품은 아마존에서 배송시키거나 poundland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아마존이 은근히 비싸서 후반부에는 poundland에서 다 샀습니다.
- 프레스턴에도 은근히 예쁜 카페, 식당, 산책할 곳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장소들을 몇 곳 써놓겠습니다.
  - 카페: Cedarwood Coffe(카공하기 좋고 가성비 있음), Brew+Bake(브런치가 맛있고 카공하기 좋음), rise(디저트가 맛있음), Starbucks coffee Preston Marina(선착장 근처라 분위기가 좋고 조용함)
  - 식당/펍: The Queen Vic Fish and Chips(가성비 좋고 맛있는 피쉬앤칩스), Wetherspoon(가성비 있고 수다 떨기 좋은 펍, 초콜릿케이크가 맛있음), Thai Royal(현금 계산하면 할인해주고 맛있는 태국 음식점)
  - 기타: Avenham Park(넓어서 피크닉하기 좋은 공원), Odeon(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영화보기 좋았음), Preston Marina(산책하기 좋음), Moor Park(산책하기 좋은 공원인데 가는 길의 치안이 안 좋아서 낮에 가야 함)
- 영국에서는 기차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많은데 취소됐을 때 기차 회사와 목적지가 같다면 다른 시간대의 기차 아무거나 탑승해도 됩니다.
- 공항에서 학교로 오는 셔틀 버스를 무조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학교 이메일로 아마존 프라임 6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에 medical center가 있습니다. 저는 이용한 적이 없지만 친구들의 후기를 들어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약을 많이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국제학생증이 없었는데 UCLan에서 만들어준 영국 학생증으로 스페인에서 성당, 알카사르 학생 할인을 받았습니다.
-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서 다른 항공사에서는 배낭 사이즈를 검사한 적이 없는데 이지젯에서는 배낭 사이즈를 꽤 자주 체크했었습니다. 저도 한 번 걸려서 추가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6) 후기

교환학생 생활은 저에게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 훨씬 즐거웠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생활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환학생이라는 도전에 대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냈던 프레스턴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도시입니다. 파티나 활발한 교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편안하고 잘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덕분에 1년 내내 휴식을 잘 취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